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조합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 추진방향



2010년 1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 양 산 업 경 영 학 과

박 순 철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조합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 추진방향

지도교수 송 정 헌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 양 산 업 경 영 학 과

박 순 철

박순철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12월 일



<목 차>

Abstract	1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8

제2장 지도사업의 변천과정

제1절 지도사업의 주요역사	10
1. 지도사업의 개념	10
2. 지도사업의 변천과정	11
제2절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 현황	13
1.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 현황	13
2.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 현황	27

제3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제1절 지도사업의 선행연구	38
제2절 조합원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기본현황	39
1. 설문조사 개요	39
2. 응답자 기본현황	40
제3절 지구별수협 사업에 대한 만족도	44
제4절 조합원의 지도사업에 대한 만족도	51

제5절 설문조사 결과종합	59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 발전방향	
제1절 지구별수협외 지도사업 사례분석	61
1. 경영상태별 지도사업비 분석	61
2. 경영상태 대비 지도사업 현황	63
3. 회원조합 지도사업의 분석	66
제2절 회원조합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강구	70
1. 회원조합의 역할	70
2. 중앙회의 역할	71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6
1. 연구의 한계	76
2. 향후 연구방향	77
참 고 문 헌	78
부록(설문지)	79

〈표 목차〉

<표 2-1> 어촌지도 관련 기관의 업무	12
<표 2-2> 중앙회 지도사업비 집행현황('07~'09)	17
<표 2-3> 중앙회 지도사업 주요내용	18
<표 2-4> 최근 4개년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현황	19
<표 2-5> 기념일 변경과정	21
<표 2-6>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내용	24
<표 2-7> '10년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계획	24
<표 2-8> 회원조합 지도사업비 집행내역('07~'10년)	28
<표 2-9> '10년 지도사업 주요내용	31
<표 2-10> 무자격조합원 정비실적	35
<표 2-11> 회원조합 조합원 현황	35
<표 3-1> 통계량	40
<표 3-2> 응답자의 지역분포현황	40
<표 3-3> 응답자의 성별	41
<표 3-4> 응답자의 연령	41
<표 3-5> 수산업에 종사한 기간	42
<표 3-6> 현재 종사하고있는 연안어업종류	42
<표 3-7> 응답자의 연간소득	43
<표 3-8> 응답자의 보유 어선톤수	43
<표 3-9> 주요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44
<표 3-10> 수협직원의 태도를 통한 세부적인 만족도	45
<표 3-11> 조합원의 자질 및 수협에 대한 애정도	47
<표 3-12> 수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0
<표 3-13> 응답자가 기대하는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 만족도	51

<표 3-14> 응답자의 수산업경영상의 애로사항 상의대상	52
<표 3-15> 응답자가 느끼는 수협지도직원 도움여부	52
<표 3-16> 수협지도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못받는이유	52
<표 3-17> 수협지도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53
<표 3-18>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도사업 추진방향	53
<표 3-19>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앙회 주요 지도사업 중요도	54
<표 3-20> 최근 3년간 조합별,어촌계별 어업인선호도가 높은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 ...	54
<표 3-21> 응답자가 생각하는 회원조합 지도사업 중요도	55
<표 3-22> 어촌, 어업인에 대한 수협차원의 최우선 개선사항	56
<표 3-23> 응답자가 생각하는 수협지도직원 능력 및 적극성	56
<표 3-24> 유관기관 대비 수협지도직원의 지도업무 추진자세	57
<표 3-25> 수협지도직원이 응답자의 영어활동에 미치는 기여도	57
<표 4-1> 정상조합의 지도사업비 비교	62
<표 4-2> 부실조합의 지도사업비 비교	67
<표 4-3> 연도별 회원조합 지도사업 계획대비 달성율(2005년~2009년)	67
<표 4-4> 지도사업 상·하위 10개 회원조합('05~'09년)	67
<표 4-5> '09년도 지도사업비예산 상위 1위조합의 주요지도사업비 현황	68
<표 4-6> '09년도 지도사업비예산 하위 1위조합의 주요지도사업비 현황	69

<그림 목차>

<그림 2-1> 최근 4년간 연도별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도사업비 지원현황	20
<그림 4-1> 정상조합의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상관관계 분석	63
<그림 4-2> 부실조합의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상관관계 분석	64
<그림 4-3> 정상-부실조합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비교	65



The direction of NFFC's extension service for the satisfaction of cooperative members

Park Sun Choel

*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Geoje-Hansan Fishing ground cooperative, the origin of N.F.F.C was established in 1. July, 1908 and after the foundation of N.F.F.C in accordance with the N.F.F.C law, the extension business in 1970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educ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fishermen education, and propaganda of government policies. In those times, most fishermen were practicing the meaning of cooperation in their lives even though they were poor and ignorant. Today's extension service including support of fishermen's production activity, safe fishing guard, fishery wireless communication, support for the member cooperative's management streamlining, education etc, is diversified and developed ostensibly.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e role of extension business. Even though the extension service is core business of N.F.F.C, most fishermen think little of the performance of N.F.F.C, and it was always in the middle of debate on the role of N.F.F.C's development.

Moreover, member cooperatives are endangered by the shrinking of fishing ground due to the land reclamation, which deprives some cooperatives of sea. Those cooperatives are managing only mutual finance and insurance businesses and cannot serve extension business because cooperative members also cannot do the fishing activitie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that the member cooperatives are facing today,

fishermen are suffering from both increasing debt and low income caused by the change of spawning pattern, route migration. But, as a representative of fishermen and producer organization, N.F.F.C failed to do its duty to coordinate cooperative members and vigors in fishing village are lessening as a result of pollution and shrinking of fishing ground, illegal fishing activity and reduction of fishery resources as well as of withering of fishing activity, aging fishing society and insufficiency of fishermen.

Also, when the fishery industry collapse due to weakening of domestic fishery infrastructure caused by the opening markets, increasing imports such as WTO/DDA, it is apprehensive that fishermen downfall as a lowest rank position in the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foster direct/indirect self-reliance through the protection of fishery infrastructure. As a result of continuing fishery stagnation, the number of fishery house dropped from 81,571 in 2000 to 71,046 in 2008, the number of fishing population from 251,349 in 2000 to 192,341 in 2008, and the number of out-flowing people outnumbered the in-flowing people, and the number of people over 70 increased rapidly from 6.6% in 2000 to the 13% in 2008.

So, in order to lessen the fishermen's financial burden and to stabilize fishermen's life and to develop the fishery industry, N.F.F.C is providing policy fund to the fishermen with Government and apart from this trying its best to lessen fishermen's financial debt through the supporting special fund for the purchase of fish meal since 2008, and through the increasing 400 billion won of fishery fund for the fishermen who are suffering from internal and external management difficulties such as the increase of oil & fish meal price. At this time, it is especially required for NFFC to have a leadership that produce policy to cope with shrinking in the fishery sector by empirically reconstructing the changes in NFFC's extension service and a leadership to harmonize cooperative member's desire and to conciliate

member's effort for the relatively less developed fishery sector compared with that of agriculture or urban area. Here upon, to seek a way to vitalize extension service,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enables NFFC to take a pre-emptive steps for the future change for income increase & cooperative member's wealth based on the development of fishery culture as a producer's organization, I conducted a survey of cooperative members(fisherman) with emphasis on the rational fishery management including living environment & preservation of fishing ground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은 효시인 거제한산어기조합(巨濟閑山漁基組合)이 1908. 7.10 설립되어 '62. 4. 1 수협법 제정공포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정식 창립하였다. 수협 수행 사업 중 지도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가난과 무지 속에서 협동조합의 의미를 실천하였던 시대인 '70년대에는 생산기술지도, 시청각교재를 이용한 어업인 기술교육과 정부정책홍보가 주류를 이루었다. 지금은 어업인생산활동지원, 안전조업지도 및 어업통신업무, 회원조합 경영개선지원 및 조합원 교육, 조합원관리 등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다양화 되고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여 분류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인 지도사업이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근간인 조합원들이자 그 구성원인 어업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경우 '60년대 후반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성이 아닌 정부주도하에 만들어져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어촌지역에 지도사업을 목적으로 어촌지도원을 선발해 어촌지역에 파견하였고, 이들을 통해 지도계몽은 물론 계통조직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계통판매를 주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신기술 전파뿐만 아니라 현장밀착형 지도사업을 전개했고 소규모 위판사업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어촌계를 전국적 지구별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오늘날 수협의 초석을 닦았으나 경제성장 이후 수협의 지도사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어촌지역의 많은 변화로 지도원을 직접 파견해야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특히 협동조직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지구별 수협의 역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조합을 통한 지도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지구별 수협의 경우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등 수익중심의 사업이 주업무가 되면서 지도사업은 유명무실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일선 수협들은 간척매립으로 어장이 축소돼 협동조합으로서 수협의

기능조차 할 수 없어 바다가 없는 수협이 생겨날 정도다. 따라서 바다가 없는 조합은 상호공제사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조합원들 역시 어로행위를 영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사업은 당연히 하지 못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조합원이 당면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업종사자들은 과거에 비해 수산자원 산란패턴 및 이동경로 변화와 어류생산 이상 현상 등으로 어가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어업인의 대표조직이자 생산자단체인 수협은 조합원들을 결함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어장오염·축소, 불법어업 및 자원감소로 인한 어업활동 위축과 고령화, 공동화, 어선원 부족에 따라 어촌활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TO/ FTA 등 시장개방, 수입 확대로 국내 생산기반 약화되어 수산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최하위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어촌 및 수산업 기반보호를 통한 직·간접적인 자립의식 함양이 절실한 실정이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로 어업가구수는 '00년 81,571가구에서 '08년 71,046가구로, 어가인구수는 '00년 251,349명에서 '08년 192,341명으로 감소하였고, 수산업의 상대적 비중 축소로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어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70세 이상 어가인구 비중 또한 '00년 6.6%에서 '08년 13%로 증가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해마다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어가 경영안정과 어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08년부터 양식어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유가 및 사료가격 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영어자금 공급한도를 4,000억원을 증액 지원하여 어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구별수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은 어업인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자율 기반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하는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여전히 조합의 경제적 관점 중심으로 접근하여 지도사업이 약화되는 등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협은 원래 목적사업인 교육·지도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과거 선행연구에서도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수산행정, 수산금융, 지도기관이 상호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수산업과 어업인을 기초로 어업인조직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 기초조직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수협 지도사업의 변화 실태를 경험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산업 위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촌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국가의 어업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농가나 도시근로자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가를 위하여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노력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수산단체로서의 역할 강화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이에 어업인의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앞장서서 어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촌문화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과 조합원의 재산가치 향상을 위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협의 최우선 사업인 지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수협이 다양한 기능 중에서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교육·지도사업(수산업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득증대사업 지원, 수산자원 보호, 회원조합 지도·지원, 안전조업지도, 어정활동, 각종 홍보와 교육 등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지도사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조합원 만족도와 지도사업과의 관계, 조합 사업성과와 지도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조합원의 행동과 태도 및 직무만족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 92개 회원조합 중 22개 지구별 조합의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어촌계장,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수협 조합원 만족의 속성 도출과 관련하여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정부나 각종 기관의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협의 전반적인 만족도(사업만족도, 직원만족도, 업무처리만족도 등)와 교육·지도사업측면 만족도(사업의 실익성, 생산기술 향상 지원 등), 수협 구성원의 행동, 태도에 관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수협 지도사업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회원조합 차원의 어촌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의 어업인 육성책과 회원조합을 지도·지원하는 중앙회 차원의 방안을 찾아보았다. 이 설문지를 수협 중앙회 내부 포탈 전자결재체계(EKP) 우편시스템을 통해 회원조합에 배부, 회수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VER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단일사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분석으로 이중적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제2장은 지도사업의 변천과정, 제3장은 수협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제4장은 수협의 지도사업 발전방향, 마지막 제5장은 결론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도출하여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제 2 장 지도사업의 변천과정

제 1 절 지도사업의 주요역사

1. 지도사업의 개념

‘지도(指導)’는 사전적 의미로는 ‘안내하는 일’로서 집단구성원들 위에서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속에서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일을 말하며 광의의 지도사업과 협의의 지도사업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광의의 지도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생산지도, 교육사업, 홍보활동, 조사연구사업, 문화후생사업 등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과 대정부 정책 활동을 말하며, 협의의 지도사업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기술지도와 경영지도 및 생활개선 지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어촌지도사업의 의의를 개별어가 또는 소수어민의 힘으로서는 어려운 근대적인 어업생산기술 혹은 어가생활에 변혁과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정부나 공공단체가 계획적 지속적으로 계몽, 선전, 보급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¹⁾

어촌지도업무는 정부주도의 어촌지도소가 주축이 되어 시행되어 왔고 보조적으로 지자체와 지구별 수협 등에서 나누어 실시되어 왔다. 어촌지도소는 실제적인 기술지도업무가 핵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개발과 행정관리 차원의 지도 단속이 주임무이며, 수협에서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인의 생산과 전반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해왔다.

수협의 지도사업은 회원조합의 역량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어촌 지역사회개발에 사업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협동운동의 주체인 수협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중심적인 협동조합 사업이다.

1) 송정현, 「협동조합경영론, 2010」

2. 지도사업의 변천과정

지도사업의 내용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60년대에는 교육 및 지도계몽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70년대에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어촌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어촌새마을사업은 ‘72년부터 수협이 지도사업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어촌개발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이 전개한 새마을운동의 일종으로서 소득증대사업, 문화복지, 생산기반조성, 어촌계 육성, 정신계발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어 복지어촌건설에 크게 기여하였다. ‘80년대는 어촌 협동운동의 전개와 복지어촌 건설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90년대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 보급, 환경개선과 어장관리, 수산기술 홍보, 어업인 교육 및 경영지도, 어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보조지원자 입장에서의 정부 위임·위탁사업 수행이 수협 지도사업의 큰 부분으로 차지하다보니 본연의 지도사업 기능이 취약해지고 정부 주도의 추진으로 지도사업은 보조사업이란 인식이 만연되어 지도사업보다는 여타 수익사업이 우선시 되었다.

현재의 어촌지도 업무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기술보급, 환경 및 어장관리, 어업인 교육, 어업후계자 육성, 수산기술 홍보, 어촌지도기반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로 어촌 지도업무 핵심방향은 어업인을 중점대상으로 수요 당사자인 어업인의 어촌지도에 대한 이해와 요구, 필요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표 2-1> 어촌지도 관련기관의 업무

어촌지도소	지방자치단체 (시·군)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 경영지도 · 어업인후계자 수산기술 지도 및 교육 · 어장정화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 수산통계조사 ·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 개선 지도	· 수산물 증식 및 친해, 내수면 개발 ·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어항 조사 · 수산진흥 계획수립 · 어로, 어업지도 및 단속 · 수산물 유통 수산제조업 지도	·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 회원조합 경영개선 지원, 조합원 교육 ·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 통신 업무 · 어정활동 · 조사 · 홍보	·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 어촌소득 증대사업 · 어업기술자 양성 · 조합원 관리 · 어업분쟁의 조정 ·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시책건의 · 안전조업, 기타 민원업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지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8」, p13

제 2 절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 현황

1.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 현황

가.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 종류 및 내용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은 어업인 소득기반의 확충과 어촌지역사회 개발 및 어업인의 복리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²⁾하고 있는 사업이며 협동조합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어업인 또는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사업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수산인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지도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 바다환경정화, 정책지원, 도시어촌교류지원, 홍보, 조사연구, 해외협력활동, 교육활동, 안전조업 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러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영어활동과 관련한 불편사항 경감과 어업인의 불이익 대변을 위하여 어민사랑예금 판매를 통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소송대행, 무료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사업을 간접적으로 실시하여 자체 어업인 피해보상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산분야의 일자리 정보, 복지정보, 교육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업인 복지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09. 9.10 설립등기), 수산업 및 어촌사회 봉사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어업인 권익향상 도모를 추진 중이다.

둘째, 회원조합 지원으로 수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의 직제, 인사, 복무 등의 인사업무 지도와 회원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경영평가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한 건전 회원조합으로의 육성과 조기경영정상화 도모에 이바지 하고 있다.

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 혁신에 관한 연구」, 1999,p28

셋째, 자원조성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생활 오염수에 의한 어장환경오염, 불법어업,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장환경개선 및 자원회복을 목적으로 수산종묘 방류와 패류자원의 천적인 불가사리를 퇴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의 대표단체로서 위상정립과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푸른바다가꾸기 운동을 대규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 국민이 클로버 [(C-lover)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가 되어 바다를 가꾸고 사랑하는 데 동참자는 수협외 범국민 바다사랑운동인 “클로버(C-LOVER)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넷째, 바다환경정화사업으로 수산자원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꾸기 위해 마을어장 및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어장환경을 개선, 복원하는 바다정화사업, 국제연안정화의날(9월 셋째주 토요일) 전국적인 바닷가 대청소 실시, 조업중 생활쓰레기 퇴거제 도입 사업, 정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연계한 집하장시설 지원사업과 수협 및 일반인 스킨스쿠버동호인으로 구성된 클로버봉사단을 통해 불가사리와 같은 해적생물을 퇴치하는 등 풍요로운 어장환경을 가꾸고 자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및 어업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정책지원사업으로 외국인력지원을 통해 대표적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근해어업 및 양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외국인선원제(20톤 이상) 도입(연간 1,500명)과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20톤 미만 및 양식업) 대행(취업)기관으로서 고용허가제 취업교육인원(연간 600명)의 우수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를 어업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자·대표자들의 조합경영능력 배양 및 책임의식 고취와 자발적인 수산현안 모색을 통한 민간 주도적인 수산행정 수행으로 바람직한 수협위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수산정책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여섯째, 도시기업과 어촌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업은 어촌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어촌은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어촌 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과 어촌의 상호가치를 상승시키

는 범국민적 어촌자매결연 운동으로 어촌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갯벌, 조업체험, 낚시 그리고 전통 어구어법, 민박체험 등을 통하여 어촌에 대한 이해와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들은 어촌체험관광 기반시설 및 민박·낚시어선 개보수의 지원을 받아 회원조합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관광사업 지원과 어촌 전통문화를 어촌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개발·육성하고 있다.

일곱째, 홍보활동으로서 계간 잡지인 우리바다 및 수협방송을 통해 수협 주요 추진사업과 수산정책 및 각종 지식정보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어촌체험캠프, 각종 공모전 등의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여 수산의 중요성과 어촌문화에 대한 친근감 고취에 앞장서고 있으며, 어업인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수협·수산관련 소식의 정확한 전달, 홍보 등을 위해 '09. 4. 1 수협소식지 “어업in수산”을 창간하고 수산물 생산과 소비관련 뉴스, 수산정책 및 수산관련 종합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담아 매주 목요일 10,000부를 발간하여 어업인, 수협, 정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배포와 대외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여덟째, 조사연구사업으로서 회원조합과 어업인이 경제·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수산업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경영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조사하여 정부의 수산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DDA 및 FTA 등 국제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어업인의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영어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협의 사업실적과 수산동향 등을 수록한 업무백서·수협통계·조사월보·영어자금소요액조사 등 수산관계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아홉째, 어업인 보호를 위한 국제통상협상 대응을 통한 해외협력활동으로 중국, 일본 등 인접국 수산단체와 정례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수산업관련 대외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세계협동조합연맹(ICA)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WTO/FTA 수산업대책위원회’ 운영·지원 등 지역단위 수산국제기구와의 협력, FTA민간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참석,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및 수산·금융위원회 활동을 강화(’09.11.16 이종구 회장 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하여 우리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추구하고 해외수산 정보수집과 해외어장 진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1년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매년 조업 하는 등 해외 대체어장개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열번째, 교육활동으로 어업인과 임직원의 협동운동 이념고취 및 새로운 지식·정보의 습득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인 교육은 현장순회교육과 연수원에서의 집합교육,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위성방송 및 인터넷직무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열한번째, 안전한 조업 및 어로활동을 지원하는 안전조업지도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항·포구에 위치한 어업정보통신국의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조업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난어선 구조통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지도와 조업어선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정보를 제공하며,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에 의한 당사국간 입어에 관한 각종 정보,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등을 수집하여 당사국과 우리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협정사항 이행 등 어업인에게 유익한 어업정보 제공과 수산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도사업은 수협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나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사업부문(신용사업, 경제사업, 상호·공제사업)의 자금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비용조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수협의 지도사업을 위한 자금은 수협법에서 잉여금의 20%를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조성하고, 당해연도 지도사업 실시 이후 손실액을 타사업부문에서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위임·위탁사업의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만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수협경영부담과 지도사업비 조달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

<표 2-2> 중앙회 지도사업비 집행현황('07~'10년)³⁾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 행 실 적			2010년 예산
	2007년	2008년	2009년	
지도사업비용	26,030	29,472	25,728	32,514
조직강화비	2,811	2,241	2,012	3,694
생산지도비	2,894	6,908	3,690	6,355
교육훈련비	2,041	2,148	2,047	2,730
조사연구비	941	683	575	946
선전계몽비	1,709	1,606	1,426	2,485
어로통신비	15,634	15,886	15,978	16,304

□ 지도사업비 주요집행사업

- 조직강화비 : 회원조합 승진자격고시, 회원조합 이차보상, 어업인 사망위로금 지원, 회원조합 정기감사 등
- 생산지도비 : 수산종묘방류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 마을어장 정화사업, 수산물 소비촉진 축제 지원, 자율관리전국대회 등
- 교육훈련비 : 수산장학금 및 자영수산물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각종 연수원 교육비 등
- 조사연구비 : WTO/FTA 관련 회의 참석, 조사 통계자료 작성 등
- 선전계몽비 : 어린이 어촌체험캠프, 어촌사진 공모전 등
- 어로통신비 : 안전점검요원 인건비, 어업정보 방송국 운영 등

3)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표 2-3> 중앙회 지도사업 주요내용

사업분류	세부사업내용
1. 회원조합 인사관리	회원조합 인사제도 개선, 회원조합 2급 승진자격고시 실시, 회원조합 인사총무기획과정 교육, 회원조합 인사제도개선 연구회 개최
2.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수산정책 워크숍, 어업인 복지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자금지원(회원지원자금, 조합육성자금), 회원조합 지도업무 사례집 발간, 지도업무 권역별 현장 간담회, 지도업무 발전을 위한 책임자 워크숍, 어촌계 현황 자료집 발간, 협동운동 패러다임 확산 연구회, 회원조합 정체성을 위한 협동운동 교육
3. 회원조합 임직원 경영능력 제고	회원조합 지도지원 평가, 회원조합 신입임원 교육
4. 어촌지도자 발굴 육성	어업인 포상(새어업인상, 이달의 새어업인, 어촌청소년대상)
5. 수산자원 조성	불가사리 퇴치사업, 회원조합 수산자원 방류사업, 해양폐기물 집하장 시설사업
6. 바다가꾸기 운동	푸른바다가꾸기 운동, 바다정화사업,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수중어장 정화운동
7. 자율관리어업 육성지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자율관리어업 지도자 리더쉽 교육
8.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어업인 육성사업 워크숍, 다문화가정 도시문화 체험행사, 어촌지역개발리더 육성사업, 어업인 사망 위로금 지원
9. 수산제도개선 및 피해지원대책 수립건의	어업피해예방 및 보상지원, 어업피해보상 담당자 워크숍 개최, 수산관계법령 발간 배부
10. 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어촌전통문화마을 기반시설 지원, 어촌전통문화 재연지원 사업,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시범조합 어촌체험관광 여행비 지원, 수협추천 민박, 낚시어선 개보수지원,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수산물 축제지원, 어촌관광안내 책자 발간
11. 어촌자매결연 활성화	어촌자매결연 체결, 어촌사랑자매결연 및 체험관광 활성화 워크숍, 도시·어촌 자매결연 교류축전 지원, 자매결연기업(단체) 임직원 및 가족어촌체험행사, 어촌사랑 초등학생 글 그림 공모, 어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 지원, 어촌사랑 여행지원, 올해의 도시·어촌 교류상 시상 주관
12. 우수외국인력 적기도입 및 교육	외국인력 도입, 외국인력 입국 교육, 외국인력 관리조합 실무자 워크숍, 우수 외국인력 한국문화 체험, 외국인력 입국 교육교재 제작
13. 관리업체 및 고용업체 실태 점검	외국인력 및 고용업체 실태 점검, 송출국가(회사) 현지점검, 선원관리업체 실태점검

사업분류	세부사업내용
14. 외국인력 사후관리	선원관리업체 간담회 개최, 외국인력 애로상담센터 운영, 성실외국인력 및 우수고용업체 발굴, 외국인력 재교육 실시, 외국인력 관리시스템 구축
15. 외국인력 제도개선	외국인력 도입관련 제도개선 추진
16. 경영컨설팅	회원조합 경영컨설팅, 내부 전문인력 양성(MBA), 내부 전문인력 양성(전문화교육), 경영컨설팅 보고회, '08년, '09년 사후관리, '10년 현장진단, '10년 사후관리, 회원조합 경영진단 모델 및 컨설팅 매뉴얼 제작, 회원조합 컨설팅팀 시범운영
17. 회원조합 회계지도 및 평가	회원조합 예·결산 및 회계업무지도, 회원조합 결산평가 및 포상, 회원조합 직원 회계교육, 회원조합 현장 회계지도, 회원조합 결산현황 책자 발간, 회원조합 회계업무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운영, 회원조합 일반회계 회계 매뉴얼 책자 발간
18. 회원조합 경영현황 조사	회원조합 경영실태평가, 회원조합 경영상태실사 및 MOU이행 점검, 회원조합 경영상태실사 교육,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유공포상
19. 회원조합 파견관리	구조조정 현지 추진반, 파견관리반(경영지도역)파견, 적기시정조치 현장 지도
20. 구조개선관련 규정 정비, 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편람 책자 발간,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워크숍	

- 지속적인 예산 절감,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어업인·회원조합관련 지원예산 지속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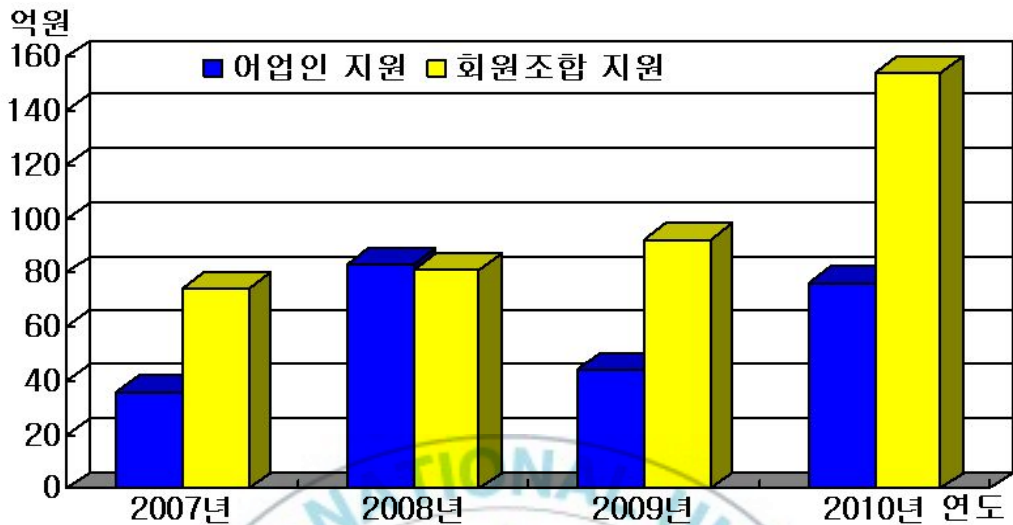
<표 2-4> 최근 4개년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7년(A)	'08년	'09년	'10년(B)	증감(B-A)
합 계	110	164	136	230	120
어업인 지원	36	83*	44	76	40
회원조합 지원	74	81	92	154	80

* '08년은 고유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추정 지원으로 어업인 지원금액 급증

<그림 2-1> 연도별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원현황



나. 수협중앙회 지도사업의 추진사례

첫째, 어업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어업인의 날 부활 제정’ 어정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초 어업인의 날(‘69. 4. 1)은 권농의 날에 포함되고 ‘농어업인의 날’로 변경되었다가 ‘바다의 날’에 다시 흡수되고 해양수산부 해체 후 ‘바다의 날’에 그대로 남아있어 관리부처가 모호하고 ‘어업인의 날’ 관리 부처 혼선이 있으며 어업분야 종사자 기념일이 해운항만 관련 기념일과 혼재돼 수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주무부처(농수산부) 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어업인 의견 대변이 가능하고 수산업의 특성이 드러나며 많은 어업인이 참여 가능한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부활하려고 추진 중이다. 어업인들의 정책적인 소외감 해소와 위상 제고를 위한 어업인의 날 부활 추진을 위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10년 수산정책과제로 채택하였고 ’10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업무보고(‘10.1월) 건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업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업인의 날을 조속히 부활하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기념일자 선정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표 2-5> 기념일 변경 과정

구 분	어업인 관련	농업인 관련	비 고
'69. 4. 1	'어민의 날'(1회)		
'73. 3. 30	'권농의 날(5월 첫째 화요일)' 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기
'96. 5. 30	'농어업인의 날(11. 11)' 제정		
'96. 5. 31	'바다의 날 제정'		어업인 무관
'96. 11. 11	'제1회 농어업인의 날' 행사		
'97. 5. 31	'바다의 날' 행사		어업인 참여 해수부 신설 ('96. 8. 8)
'97. 11. 11		'농업인의 날'로 변경	
'08. 2. 29	'바다의 날'주관부처 국토해양부로 변경		해수부 해체

둘째,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위판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90년대 '의무상장제'가 폐지된 이후에 의무상장제 재추진에 대한 의견수렴과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임의상장제 시행 이후 계통판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을어장 정화사업, 수산종묘방류사업, 자율관리어업 등의 예산 지원 시 계통출하를 유도하거나 생산통계 및 어업경영조사 등의 통계작성의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 정부의 유통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수협역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지만, 지역별 수협 계통판매 현황 및 위판을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판제도인 임의상장제도를 의무상장제도로 전환토록 위판제도개선을 통하여 수협중앙회와 전국 회원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대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다. 현재 일부 회원조합의 경우 중도매인 모집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중도매인 가입비를 중도매인 조합에서 지급받고 있는 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이외에 매매참가인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통판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계통출하 실적향상 및 위판을 증가를 위한 세부 대책으로 현재 낙후되어 있는 위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작업과 중도매인의 보장을 통하여 어가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경매방법, 어가 하락사유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와 기타 어업인들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활동도

지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수협이 거시적 역할 증대 및 역할 수행을 위해서 어촌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지구별수협의 경우 지역에 따라 소비자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특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으로 판로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홍보 등 제반여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철저한 마케팅 대상 확보와 판매계획이 선행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농어업법인전문회사에 수협이 출자형태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조합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선행 중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된 판매망 확보를 통한 상생방안이 절실하다.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이후 점차적으로 각종 정책추진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협과 지자체간의 협력 관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이후 전국에 분포되어 있던 도지회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지자체와의 유대관계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정책 방향추진에 있어 어업인들의 권익과 복지문제, 개별어업 육성문제 등의 방향설정에 많은 관심과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향후, 수협중앙회의 도지회 부활을 통해서 지자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어업인의 여론 반영과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 수행을 실시코자 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의 생계문제와 연결된 조업관련 수산업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협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어촌개발 계획의 수립에 직접 참여하여 지자체의 준비된 예산과 조합의 노력이 융화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따라 지방행정과의 횡적 협동 강화와 지역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중심 지도조직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권역별·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업에 대한 기존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각 사업의 장·단점을 재조명해 보고 회원조합의 어업 환경에 적합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및 민간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일원화된 매집, 가공, 유통 채널을 만들어 사업영역 확대 및 생산지조합(수협)과 소비지조합(생협)의 직거래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단체는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를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명운동으로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넷째,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조합원(어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어촌지역 리더육성을 위한 리더동기화 과정 등 4개 모듈과 어업인 교육(5개과정, 180명, 90백만원)과 협동운동 이념 및 정체성, 심화훈련, 조합경영현황 등 협동의식 고취를 위한 어업인 협동운동 교육(20개조합, 1,293명, 160백만원),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조직화 사례, 분임토의, 협동운동 교육 등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워크숍(72개 조합, 80명, 30백만원), 봉사활동·여성대학·교양강좌·전문교육비 지원, 여성어업인 육성사업 지원(80백만원) 등을 통하여 어업인 교육기회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주인정신 함양의 실질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향후 어업인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교육추진체계를 중앙회의 지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09. 9.10 어업인의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지원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은 설립취지에 발맞춰 어업인 교육·의료지원사업, 어업인 복지증진 사업, 장학사업, 어촌문화사업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의 경우 재단 자체사업은 재단 예산으로 실시하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출범 초기라 예산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열악한 재원(28억원) 극복을 통한 사업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농협문화복지재단(재원 약 4,000억원) 등 타 복지재단의 설립재원에 비하여 재원 구성이 미미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지난하지만, '14년까지 재원 500억원 확대를 목표로 증대활동을 추진 중이나 자체 증대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되고 있다. '10년 중앙회에서는 10억원의 출연금과 공익상품 개발 수익금을 출연하여 사회 공익재단 출연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 홍보 등 사업 효과를 고려하여 재단활성화 방안과 어업인 권익도모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중이다.

<표 2-6>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내용

사 업 종 류	사 업 내 용
어업인 교육사업	○ 생활법률 상담지원, 취업교육, 교양강좌 등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어린이 논술교실 등 운영
어업인 의료지원사업	○ 고령·저소득 어업인 대상 진료·건강검진비 보조 ○ 의료봉사단체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어업인 복지사업	○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등 ○ 학교 도서·컴퓨터 보내기 운동 등
어촌 문화사업	○ 어촌 문화행사 개최, 지역 어민복지회관 등 지원 ○ 도시청소년 ‘어촌문화체험단’ 등 운영
기타 사업	○ 장학금 지급 등

<표 2-7> ‘10년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사업계획4)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10)	계		1,370
자체	소 계	-	50
(1)	어업인 자활교육	인재교육원, 전문기관 위탁 등	50
	소 계	-	1,320
마 사 회 특 별 적 립 금	어업인 의료지원	인공관절, 보철지원 등	240
	어촌 주택 태양열 전환사업	어촌주택 태양열 전환	130
	어항방송 운영 및 시청시설 확대	어업인에게 어항 등 실시간 제공	300
	어촌 복지지원 확대 연구용역	어촌분야 복지지원 확대 연구용역	50
	흑산도 선원위령탑 복원사업	침몰어선 선원 위령탑 복원	50
	어촌문화복지회관 건립	경북지역 어촌 문화복지회관 건립	200
	어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어촌마을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지원	200
	어촌여행 활성화 기획자료 제작	방송기획 자료 제작	90
	국제 수산분야 기술 교류	어촌발전방안 마련 국제전문가 회의	60

※ 사업기간 : 재단 자체사업 ‘10.1.1~12.31(1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원사업 ‘10.7.1~’11.6.30(1년)

4)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내부자료

다섯째, 어업의 소득의 다변화 모델 개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어촌의 정주환경은 어촌에서의 어업경영을 통한 소득증대의 한계 인식으로 인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수산업의 환경변화와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촌·어업인 붕괴로 어업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어업인의 신뢰를 상실하여 중앙회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회원조합 차원에서 어촌종합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 전개 및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여 향후 어업인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업과 관광을 접목시키는 체험형 어촌 관광사업 추진, 어촌의 독특한 볼거리와 역사를 통한 체험기회 제공, 해안 가로등, 관광 낚시선, 선착장 등 신규 단장 실시, 어촌 민박 시설과 어촌 관광 종합 센터 건립, 낚시선 운영과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촌락의 문제점을 극복한 사례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어촌지역 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레포츠피싱소득, 어촌관광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업소득은 어업자원의 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면 어업외 소득은 해양생물자원과 어촌 경관 등 어촌자원을 통합적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창출된다. 그러나 어업자원 이용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는 해양생태계의 부양능력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레포츠피싱 자원 및 어촌관광 자원의 개발·이용에 의한 어업외 소득 향상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⁵⁾

주5일제 근무 시행, 생활 여건 개선, 선진국 진입 등으로 인하여 관광사업이 21세기 주력사업으로 급부상하고 관광 및 레포츠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롭게 창출되는 관광테마는 기존과는 달리 모험적이고 활동적이며 건강을 고려한 체험형 관광활동으로 레포츠피싱은 기존 해양 레포츠와는 달리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할 수 있다.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은 레포츠(Leport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레저를 목적으로 자발적인 수중 동식물을 채포 및 관찰하는 행위⁶⁾로 정의하고 있

5) 국토해양부, 「레포츠피싱을 위한 거점비즈니스 모형개발 연구」, 2009, p143

6) 해양수산부,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2005, p9

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 이면에는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의 무분별한 포획행위 증가, 이에 따른 폐기물 증가 등으로 어업인과의 갈등 심화와 같은 단점도 있지만, 어업의 소득 증가 측면에서는 레포츠피싱만한 아이템도 없으며, 레포츠 피싱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정책 핵심으로 추진중인 어업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동시에 거양 가능하다. 국내 레포츠 피싱의 유형으로는 유어낚시형, 갯벌체험형, 체험어업형, 수중체험형이 있으며, 유어낚시형과 수중체험형은 주로 동호회, 소규모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갯벌체험형과 체험어업형은 기업체, 대규모 단체, 가족 등으로 참여인원이 확대 추세이다.

현재 레포츠피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어촌체험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삼척 장호어촌계이다. 동남야 휴양지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스노쿨링과 바다가 흰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카누, 스킨스쿠버다이빙을 국내에 도입해 강원도의 천혜적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체험레포츠형 어촌체험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 결과 매년 10만명이 방문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단, 레포츠피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수면에 대해 유어장 지정과 유어장 지정조건의 완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시설을 설치한 수면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과 관련한 법률문제의 조정 또는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협중앙회에서는 ‘10년 레포츠피싱 활성화 관련 민박 낚시어선개보수 150백만원, 어촌전통문화 지원 350백만원, 전통문화 기반시설 180백만원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 확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업인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수협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고 수협경영의 기본은 조합원의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강화, 어업 생산활동 극대화를 위한 안전조업 지도 강화, 어업의 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등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의 지속 추진과 중앙회-회원조합 상생을 위한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임원 및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한 협동운동

교육 확대, 협동운동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연구 토론 활성화 비용 반영, 어촌지역을 선도할 어촌지도자(리더) 양성 교육 기회 증대, 여성 역할 증대에 따라 주부모임, 여성대학, 전문교육 등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어업인 및 회원조합 협동운동 확산 등 회원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확대하고 있다.

2.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 현황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은 경제적 사업을 촉진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협동조합 기본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모든 어가를 개별접촉하여 어업인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산종묘의 생산·보급,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바다가꾸기 운동 및 불법어업 추방운동 지속 추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과 자원 조성사업 확충, 적조 및 각종 해양 오염에 의한 어장피해 예방 및 최소화, 각종 공단 폐수 및 기타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업무의 지속적 추진과 어장질서유지 및 新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합리적인 어업구조조정과 어업피해의 최소화, 어업분쟁의 조정과 같은 어로 및 생산지도사업 실시,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용, 수산기술자 양성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해난사고예방 및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어선사고 예방 교육 강화,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 수행, 생활환경개선·지역역량강화 등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선도할 어업인 및 직원교육강화, 조합원의 주인의식 및 참여의식 제고로 자율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2-8> 회원조합 지도사업비 집행내역('07 ~ '10년)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196	217	204	273
조직강화비	109	128	121	161
생산지도비	44	47	43	57
교육훈련비	16	15	14	19
선전계몽비	22	23	22	31
지도잡비	5	4	4	5

가.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 추진사례

전남, 경남, 경북지역 중 조합원이 많고 지도사업이 타 지구별수협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A수협('09년 조합원수 11,769명), B수협('09년 조합원수 4,614명), C수협('09년 조합원수 2,293명)의 '10년도 지도사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어업인의 해난사고, 자연재해 등 피해지원 강화와 농림수산물 품부·도·군·중앙회의 정책제안기능 강화를 위한 어업인의 의견수렴 적극반영을 목표로 중앙회 주요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바다정화사업 확대,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어장 쓰레기 수거, 수산종묘방류 실시, 불가사리 퇴치사업, 적조 및 수산피해 예방지도 강화, 어촌사랑 자매결연 지속확대, 어촌계·어촌사랑주부모임 등 계통조직 활성화 추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참가 및 수산정책의 핵심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주도,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어촌계장·대의원교육등 어업인의 협동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강화, 어촌체험관광을 위한 어촌계지원, 출자증자 우수 개인·어촌계 포상 도입 등 어업인 중심의 사업추진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합별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수협의 경우 '07년 미처리결손금이 119억9천

만원에 162개의 어촌계에 조합원이 1만2000여명, 직원은 비정규직까지 100명이었지만 상호금융사업으로는 조합경영에 한계가 있어 비이자 수익인 공제사업을 선택한 결과 공제수수료가 '08년엔 7억3천백만원, '09년에는 9억6천백만원으로 조합 재정 확보에 큰 보탬이 됐다. 올 상반기결산 결과 12억4천8백만원의 흑자를 실현해 '07년 미처리결손금 119억9천만원 중 58억1천만원을 처리하고 현재는 61억8천만원이 남았다. 또한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저원가성 예금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법적 제약이 많은 군금고 유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수준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한 뒤 조합원들의 진정서를 군청에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지난 4월 00군수와 간담회를 거쳐 6월 지출 대행점 계약이 완료되어 수협과 농협이 복수로 '10년 6월 20일부터 2년간 지자체금고 유치 계약을 하였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에 따른 사업성고가 조합원을 위한 지도 사업 대폭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B수협의 경우에는 올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영실태평가에서도 2등급에서 1등급 조합으로 상승했다. 최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형선망 등과 같은 근해어업을 00군으로 유치해 수산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제 2 냉동 냉장공장을 준공하였다. 지난해 결산 결과 10억1400만원의 흑자를 실현하여 최근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영성과는 현재의 미처리 결손금 8억4200만원을 올해 내에 완전히 해결 가능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분잠식에서 완전 탈피한다는 계획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리고 수협 명의의 어업권을 적지로 이설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등 경제사업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던 조합원 탈퇴자에 대한 출자금 미환급분을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해 환급해 줬다. B수협은 조합 탈퇴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00군내 27개 자율관리공동체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어업 현황을 살피는 동시에 어업피해보상전담팀을 구성해 00바다를 둘러싼 분쟁 및 피해에 대해 최대한 어업인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있다. 특히 불

가사리 구제사업 및 정착성 종묘방류사업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00군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어촌 건설에 앞장서는 수협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C수협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업규모는 1,904억 6,100만원으로 16억2,100만원의 잉여를 냈고 10%를 출자배당했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펼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합지원사업 총 10건에 4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소득증대를 위해 어장청소, 종묘살포를 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선정 때는 자담금을 먼저 수협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동작업장과 마을회관 건립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출항 어업인 대기실과 휴식·정보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위관업무 활성화를 위해 선주협회, 기관장 협회 등의 조직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지 않는 어촌계와 선진 공동체에 수산종묘를 무상으로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공동체 지도자 교육과 종합병원 자매결연 등 후생복지 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 회원조합에 귀감이 되는 것은 부족한 사업비를 논리적으로 지속건의하여 반영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업인들을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5억원을 지원받아 외국인 선원 전용기숙사를 건립했고 해상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잠수복과 잠수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 어업이라는 동기유발에 의한 아이디어를 통해 갯녹음(백화현상)제거사업을 실시해 황폐화된 연안 어장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노후화된 유류탱크 시설 교체, 실내 위판장, 유통센터, 건오징어 위판장 및 보관창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 해녀 탈의실,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표 2-9> '10년 지도사업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분 / 계정과목명	A수협 예산	B수협 예산	C수협 예산	비 고
계	310,404	199,530	870,580	
조직강화비	76,010	111,900	742,405	
어촌계보조금	21,000	64,800	69,000	어촌계 경로잔치 협찬 등
회 의 비	10,400	2,000	38,740	어촌계장 회의 등
조 직 운 영 비	28,030	42,100	264,040	어촌계 및 조합원 육성지원
어업인후계자 육성	16,580	3,000	156,300	대의원, 어촌지도자조직 육성
생산지도비	116,096	44,450	96,375	
어장관리 및 자원조성비	104,546	24,000	3,600	어업권행사 실태조사 등
어항시설관리유지비		1,000	8,200	
어업피해보상추진비		9,000		
어업공해대책비	1,850	2,000		
어로지도비	3,250	3,450	7,140	
재해대책비	2,950	4,000	75,635	재해상황실 운영 등
불법어업대책비	3,500	1,000	1,800	불법어업자 전업대책 등
교육훈련비	46,540	15,180	15,220	어촌현장 위탁교육, 자체 어업인 교육
어업인 지도자교육	6,000	2,940	2,500	맞춤형어업인 협동운동교육
직원직무교육		12		교육비디오테이프구입
선전계몽비	65,758	23,000	14,080	수산물관련법령, 도서인쇄 등
광고선전비	11,100	8,800		수산물소비촉진 광고
도서인쇄비	15,950	3		조합원 달력제작 등
지도잡비	38,708	5,000		도서지역 신문보급비 등

자료: 수협중앙회 2010년 회원조합 사업계획

나. 수협 하부조직인 어촌계 활성화를 통한 역할 수행

수협법상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의 하부조직과 같이 관할 수협의 감독을 받는다. 대부분이 수협법 요건으로 인하여 지구별수협과 어촌계 두 조직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⁷⁾ 현재의 수산업 구조는 다수의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과 중대 규모의 ‘소수 어선어업 및 양식업’의 이중구조로 수협이 구심점이 되어 21세기 해양시대에 맞춰 종합업무 수행과 수산관련 산업의 육성,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01년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도지원 약화와 회원조합의 동반부실 및 부실수협의 계약이전·통폐합 등 경영정상화의 혼란기를 맞이하여, 정부·지자체에서는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을 통해 추진가능한 정책 및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를 신규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임·위탁이 아닌 직접적인 업무협위, 시행, 협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정부 시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경우에는 많은 지원금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제는 수협의 하부조직으로 귀속되어 있지 않고 이탈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수협의 구성원인 어촌계는 수협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부조직이 아닌 동등한 구성원 이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단기 성과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수협과 어업인과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수협의 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역할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자성할 필요성도 있다. 정부주도의 단체설립이나 정책자금 취급기관 개방 등의 검토사례를 살펴보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컨설팅·교육지원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주민주도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농교류 등 다양한 모델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 촉진을 위한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정부의 각 어촌계를 마을어업회사로의 육성, 김·전복 등 ‘품목별 지주회사’ 육성, 정책자금의 시중은행 전면 개방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검토 등의 수협 제외 움직임은 수협의 역할만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7) 서광문,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본질에 관한 연구」, 1999.p78

는 수산업 발전에도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을 '01년에 도입하여 참여공동체/어업인이 '01년 63개소/5천명에서 '08년 659개소/51천명으로 마을단위, 광역 및 어선·복합어업 공동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가소득은 매년 8~9% 증가하고 어업인들의 자원관리에 관한 인식 변화의 장점도 있지만 같은 어장에서 여러 업종이 조업함에 따라 업종간, 공동체간 분쟁소지가 상존⁸⁾하는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어촌계를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 등과 연계하여 어촌에 적합한 회사 유형 개발 및 표준모델로 설계하고 있으며, 주체(정부·지자체·어촌계)별 역할, 자본금 구성, 지원 규모 등 검토와 육성 대상 마을에는 '농어업 컨설팅 사업'에 의한 컨설팅 제공으로 '12년까지 50개의 마을어업회사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기업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거나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현재 법인격이 없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마을어업회사 형태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법인화 유도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인 마을어업회사로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목적은 어업인 자유투입과 공동에 의한 어장관리, 자원관리, 개별 어업인의 어업경영개선, 질서유지 등 어업인 상호간의 주인의식으로 어가소득을 증대하는 자율적 어장관리조직이지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운영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한 회사의 형태로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마을어업회사(농어촌공동체회사)의 이윤 추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경영 형태로의 회사화에는 한계 및 이질적인 면이 있다. 자율관리공동체는 지구별 수협과의 역할 중복, 업무추진 및 역할 한계,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01년 수협법 법개정으로 '02. 6월 사라진 법인어촌계의 한계에서 드러난 유사한 결과가 우려된다.

8) 농림수산물부 「신수산비전및전략」보고서, 2009, P102

이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의 대부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어촌계 계원, 양식어업자·어선어업자 협의회 및 이들의 복합 형태로 이루어지며, 마을어업회사(농어촌공동체 회사)의 역할로서 생산·가공·유통은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고유 목적 사업과의 역할 불명확으로 기존 지구별 및 업종별수협의 역할 저하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마을어업회사도 발전 곤란할 것이고 수협과 회사의 공동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마을어업회사의 추진사업인 가공·유통 등의 역할은 수협이 수행 가능하므로 수협에 대한 지원으로 역할 대체 및 증대로 마을어업회사의 사업 흡수 및 시너지 효과 기대와 어업인의 장기적 소득증대 도모가 필요하다. 어촌계와 수협과의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하여 어촌계장 등 임원선출방식, 시장·군수의 어촌계 설립·해산시 지구별수협의 의견반영 등 어촌계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어촌계 적극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통한 협동조합 내실화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이자 경제적으로는 조합의 소유자인 동시에 이용자이며 운영자가 된다.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가하는 권리와 조합구성원의 지위에서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출자의무, 경비부담의무, 과태료 납부의무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강제 탈퇴 시키고 있다. 조합원 탈퇴는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사망한 때, 파산한 때, 금지선고령 받은 때, 조합원인 법인의 해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어업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서 부실 조합원도 많지만 일반 어업인으로서 협동조합에 미가입한 상태로 영어활동을 경영하는 이들도 많다. 무자격조합원의 방치로 인한 문제점 발생으로 무자격조합원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 참여, 조합 경영참여로 조합의 건전 발전을 저해하고 어업피해 보상금 수령, 정책자금 대출 등 무자격 조합원의 반사적 이익에 따른 유자격 어업인의 혜택 및 기회 축소로

실질 어업인의 불만 팽배 및 사기 저하와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및 다수의 민원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조합에서는 정기적인 정비지도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지침의 시행('07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조합원 정비실적이 부진하고 출자금 환급이 불가능한 부실조합의 경우에는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수협은 입장에서는 조합원수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겠지만 부실 조합원들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위하여 신규 조합원의 진입을 막고 조합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 이념을 최대한 살리려 하고 있으며, 제한된 소수의 집단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폐쇄된 협동조합이 되어서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로 문호를 개방하여 모든 어업인이 조직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수산업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용고 배당 및 민주적 참여와 경영의식을 고취하도록 조합 경영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표 2-10> 무자격조합원 정비실적⁹⁾

구 분	'06년도 ('05년 3·4분기포함)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2분기누계)
정비인원	7,143명	3,986명	3,421명	3,838명	2,333명

<표 2-11> 회원조합 조합원 현황¹⁰⁾

구 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조합원수	157,625	168,803	168,285	169,860	171,949

9)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10) 2009년 회원조합 결산보고서

라. 회원조합의 전문분야 인력양성

어촌계 및 어업인의 전문적인 지도사업 지도수행을 위한 지도인력의 육성을 위해서 기존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와 함께 어업인 지도에 필요한 주민의 조직화, 정보수집 및 전달 등 전문성 또한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07년 허베이 유류유출사고만 보더라도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아 유류오염 지역수산물의 위생안전 및 유통·판매에 문제가 되었으며 인근지역의 오염되지 않은 수산물도 유통·판매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수협차원에서 피해배상과 관련한 감정평가, 소송 등을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여 영세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간접손실이나 순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청구 시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향후 재난에 일률적, 적극적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 사업 전반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며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어업인·수산업 건설팅과 같은 신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 뿐만 아니라 생산·가공사업과 관련한 단체와도 교류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보완을 추진 중이다.

마. 어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수협중앙회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부경대학교 등 7개 수산관련 대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등 10개 수산계 고교 성적 우수 재학생과 조합원 자녀에게 1인당 고교 500천원, 대학(2년제 포함) 2,000천원의 수산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어촌에 정착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자영수산과 설치고교에 대하여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 하고있으며, 장래 수산업 및 어촌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어촌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계(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산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격려하고 있다. 지도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일부조합의 경우에는 ‘어민장학회’ 등의 명칭으로 어업인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있지만 대다수 회원조합의 경우 어업인 자녀 및 조합원자녀에 대한 수산장학금 지원이 미비한 실정으로 사업수익 대비 일정금액을 조합원 환원사업비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어업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회원조합의 관심도 소원하므로 어업인 자녀에 대한 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장학금 수여식이나 행사는 회원조합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사회의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수산업을 배척하지 않도록 수산업분야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제 3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제 1 절 지도사업의 선행연구

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 만족도에 관한 논문으로 수산부문에서는 최정윤(1980)의 “어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어촌지도사업을 역할자(지도기관)가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수산행정, 수산금융, 지도기관이 상호유기적으로 결합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서광문(1999)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본질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조직으로서 수협의 기능은 수산업과 어업인을 기초로 출발하여야 하며 수협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경제적 요인인 집단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의 비수협 어업인조직의 본질에 관한 연구와 기초조직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인식·하숙양(2006)은 “협동조합 조합원만족에 관한 고찰”에서 협동조합 조합원 만족도는 조합원(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서비스를 개선하여야만 일차적 유용성이 있으며 이의 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차적 유용성이 있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조사모형이나 조사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현병수(1995)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농협지도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협의 지도사업은 지역농민을 중심으로 농촌주민의 참여에 의한 상향식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협의 영농지도와 농촌지도소의 기술지도를 통합 내지 구체적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수입농산물의 관리도 농민의 요구대로 농협에서 관리하고 그차익이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해욱(2006)은 “농협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만족도”에서 경기도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조합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지향적인 조합을 구축하기 위해 조합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사업수행 결과와 영향에 초점을 두어 성과의 질적 측면과 사업의 실익성 및 대응성등 가치 달성을 판단하는 유

용한 평가도구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곽순옥(2005)은 “농업협동조합의 농촌복지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주민들의 농협 농촌복지사업 인지도, 참여도, 만족도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활성화방안으로 농촌복지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민간, 농협, 사회 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을 통하여 농협내부의 긴밀한 역할 분담으로 복지수요 계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 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 2 절 조합원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기본현황

1. 설문조사 개요

본 조사는 '10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지도사업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수협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어촌계장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활용코자 한 것으로 조사방법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 : 지구별수협 어촌계(다만,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조합은 제외)
- 2) 조사기간 : 조사기간은 '1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문헌연구 조사 내용은 '09년(회계연도)를 중심으로 실시
- 3) 조사방법 : 전자우편조사(수협중앙회 각 지부를 통하여 조사표를 지구별수협에 배부하고, 이를 회수)
- 4)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에 대하여 검토, 집계
- 5) 자료의 정리 및 분석 : 조사대상 지구별수협 70곳 중 22곳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전국 전체지역으로 설정하였으나, 회수부진으로 인하여 지역간·조합원간 어업종류별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격차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조사대상자 중 48개 조합은 조사부진 등 기한초과

로 인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2개 조합 총 804명 중 291명이 설문
에 응답하여 회수율은 27%이며, 이중 응답오류 10명을 제외한 281명 결과를
통계처리 하였다.

2. 응답자 기본현황

<표 3-1> 통계량

구 분		지 역
N	유효	281
	결측	0

응답자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충청 40.0%, 경남 17.2%, 전남 11.2%,
경기 10.9%, 강원 7.7%, 전북 6.7%, 부산 6.3% 이었으며 경북·제주지역은 무
응답하였다. 충청지역의 경우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고 수협 지도직
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가장 높게 측정되어, 직원과 조합원간의 친밀감에 대
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2> 응답자의 지역분포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강원	22	7.7	7.7	7.7
	경기	31	10.9	10.9	10.9
	경남	49	17.2	17.2	17.2
	부산	18	6.3	6.3	6.3
	전남	32	11.2	11.2	11.2
	전북	19	6.7	6.7	6.7
	충청	110	40.0	40.0	40.0
	합계	281	100.0	100.0	10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4%(264명), 여성이 6%(17명)로, 여성의 경우 주로 어촌사랑주부모임회장 또는 부녀회장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264	94.0	94.0	94.0
	여자	17	6.0	6.0	100.0
	합계	281	100.0	100.0	

유효조사대상자 281명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39.5%(111명), 40대 28.8%(81명), 60대 이상이 19.9%(56명)를 차지해, 수산업에 대한 청·장년층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어업후계인력 및 젊은층의 귀어 정책을 통한 차기 후계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교육 등이 절실하다.

<표 3-4> 응답자의 연령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대	8	2.8	2.8	2.8
	30대	25	8.9	8.9	11.7
	40대	81	28.8	28.8	40.6
	50대	111	39.5	39.5	80.1
	60대이상	56	19.9	19.9	100.0
	합계	281	100.0	100.0	

응답자의 어업에 대한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46.3%(130명), 20년 미만이 18.4%(51명), 15년 미만이 16.6%(46명) 순이었다.

〈표 3-5〉 수산업에 종사한 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5년미만	15	5.3	5.4	5.4
	10년미만	35	12.5	12.6	18.1
	15년미만	46	16.4	16.6	34.7
	20년미만	51	18.1	18.4	53.1
	20년이상	130	46.3	46.9	100.0
	합계	277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1.4		
합계		281	100.0		

주요 종사 연안어업으로는 연안복합어업 34.8%(92명), 연안자망 22.7%(60명) 기타(마을어업 등) 22.7%(60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다수가 영세 어업인인 마을어업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감척구조조정을 통한 연안어업 재편 방향에 발맞춰 우수 마을에 대하여는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 등 어촌사회 개발과 연계한 어가소득 창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6〉 현재 종사하고있는 연안어업의 종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연안통발	39	13.9	14.8	14.8
	연안안강망	9	3.2	3.4	18.2
	연안선망	3	1.1	1.1	19.3
	연안복합	92	32.7	34.8	54.2
	연안자망	60	21.4	22.7	76.9
	연안조망	1	.4	.4	77.3
	기타	60	21.4	22.7	100.0
	합계	264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6.0		
합계		281	100.0		

조사자의 연간소득은 3천만원 미만이 26.7%(74명), 5천만원 미만이 20.6%(57명), 5천만원 이상이 19.9%(55명), 2천만원 미만이 19.1%(53명)로 아직까지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어촌계 '10년 호당 평균소득 25백만원¹¹⁾과 비교해서 약간 상회했다.

<표 3-7> 응답자의 연간소득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천만원미만	38	13.5	13.7	13.7
	2천만원미만	53	18.9	19.1	32.9
	3천만원미만	74	26.3	26.7	59.6
	5천만원미만	57	20.3	20.6	80.1
	5천만원이상	55	19.6	19.9	100.0
	합계	277	98.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1.4		
합계		281	100.0		

보유어선의 톤수는 2톤 미만 동력선(선외기를 포함)이 108척(43.2%), 2톤~5톤 101척(40.4%), 6~9톤 28척(11.2%), 10톤이상 13척(5.2%) 이다.

<표 3-8> 응답자의 보유 어선톤수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무동력	11	3.9	4.4	4.4
	2톤미만	97	34.5	38.8	43.2
	2~5톤	101	35.9	40.4	83.6
	6~9톤	28	10.0	11.2	94.8
	10톤이상	13	4.6	5.2	100.0
	합계	250	8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1	11.0		
합계		281	100.0		

11) 수협중앙회, 2009년 어촌계분류평정

제 3 절 지구별 수협사업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기본현황을 바탕으로 회원조합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9> 주요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상호금융	전혀 그렇지 않다	2	.7	.7	.7
	별로 그렇지 않다	1	.4	.4	1.1
	보통이다	47	16.7	17.3	18.5
	약간 그렇다	65	23.1	24.0	42.4
	매우 그렇다	156	55.5	57.6	100.0
	합계	271	96.4	100.0	
판매사업	전혀 그렇지 않다	5	1.8	1.8	1.8
	별로 그렇지 않다	4	1.4	1.5	3.3
	보통이다	48	17.1	17.7	21.0
	약간 그렇다	89	31.7	32.8	53.9
	매우 그렇다	125	44.5	46.1	100.0
	합계	271	96.4	100.0	
구매사업	전혀 그렇지 않다	4	1.4	1.5	1.5
	별로 그렇지 않다	7	2.5	2.7	4.2
	보통이다	61	21.7	23.4	27.6
	약간 그렇다	77	27.4	29.5	57.1
	매우 그렇다	112	39.9	42.9	100.0
	합계	261	92.9	100.0	
이용가공 사업	전혀 그렇지 않다	8	2.8	3.1	3.1
	별로 그렇지 않다	12	4.3	4.7	7.8
	보통이다	71	25.3	27.8	35.7
	약간 그렇다	86	30.6	33.7	69.4
	매우 그렇다	78	27.8	30.6	100.0
	합계	255	90.7	100.0	
공제사업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4
	별로 그렇지 않다	7	2.5	2.6	3.0
	보통이다	43	15.3	16.0	19.0
	약간 그렇다	91	32.4	33.8	52.8
	매우 그렇다	127	45.2	47.2	100.0
	합계	269	95.7	100.0	

먼저 어업인의 저축의식 고취와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경영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금(수산정책자금, 일반상업금융) 공급과 정책자금의 운용과 수산자금의 적기 공급 등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수협의 상호금융(은행)업무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57.6%, 약간 만족 24%, 보통 17%로 84%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수협이 행하는 경제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 수탁·매취판매 사업의 만족도 여부에는 매우만족 46.1%, 약간 만족 32.8%, 보통 17.7%로 79%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의 영어활동과 소비생활에 필요한 생산기자재와 생활물자 공급을 위한 구매사업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2.9%, 약간 만족 29.5%, 보통이다 23.4%로 72%의 만족도를 보였고,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제빙·냉동·냉장 사업 등의 이용보관사업의 만족도는 매우만족 30.6%, 약간 만족 33.7%, 보통이다 27.8%로 64%의 만족도를 보였다.

어업인의 어업생산, 어가생활 안정도모 등 우연한 재해로 인한 재해보장 등을 위해 실시 중인 공제사업 만족도는 매우만족 47.2%, 약간 만족 33.8%, 보통이다가 16%로 타 사업 만족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81%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수협 직원의 태도에 대한 세부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10〉 수협직원 세부적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봉사정신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1.1	1.1
	별로 그렇지 않다	3	1.1	1.1	2.2
	보통이다	34	12.1	12.6	14.9
	약간 그렇다	92	32.7	34.2	49.1
	매우 그렇다	137	48.8	50.9	100.0
	합계	269	95.7	100.0	
업무 현황파악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1.1	1.1
	별로 그렇지 않다	5	1.8	1.9	3.0
	보통이다	55	19.6	20.6	23.6
	약간 그렇다	110	39.1	41.2	64.8
	매우 그렇다	94	33.5	35.2	100.0
	합계	267	95.0	100.0	

<표 3-10> 수협직원 세부적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위기의식	전혀 그렇지 않다	9	3.2	3.4	3.4
	별로 그렇지 않다	14	5.0	5.3	8.7
	보통이다	67	23.8	25.3	34.0
	약간 그렇다	95	33.8	35.8	69.8
	매우 그렇다	80	28.5	30.2	100.0
	합계	265	94.3	100.0	
의사소통	전혀 그렇지 않다	3	1.1	1.1	1.1
	별로 그렇지 않다	2	.7	.7	1.9
	보통이다	46	16.4	17.0	18.9
	약간 그렇다	95	33.8	35.2	54.1
	매우 그렇다	124	44.1	45.9	100.0
	합계	270	96.1	100.0	
업무혁신	전혀 그렇지 않다	2	.7	.7	.7
	별로 그렇지 않다	7	2.5	2.6	3.4
	보통이다	40	14.2	14.9	18.3
	약간 그렇다	103	36.7	38.4	56.7
	매우 그렇다	116	41.3	43.3	100.0
	합계	268	95.4	100.0	
조합원 의사반영	전혀 그렇지 않다	2	.7	.7	.7
	별로 그렇지 않다	8	2.8	3.0	3.7
	보통이다	67	23.8	25.0	28.7
	약간 그렇다	93	33.1	34.7	63.4
	매우 그렇다	98	34.9	36.6	100.0
	합계	268	95.4	100.0	

우선 수협직원의 봉사정신의 경우 매우만족 50.9%, 약간 만족 34.2%, 보통 12.6%로 85%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수협직원의 회원조합 업무 현황과약을 통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도인 유연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약간 만족 41.2%, 매우만족 35.2%, 보통 만족 20.6%로 76%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평소 수협직원이 근무하는 조합이 처해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약간 인지한다 35.8%, 적극적으로 인지한다 30.2%, 보통으로 인지한다 25.3%로 66%가 위기의식을 인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밖에 평소 수협직원과 조합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여부는 매우만족 45.9%, 약간만족 35.2%, 보통 만족 17%로 81% 이상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속 회원조합 직원들의 조합 체질개선을 위한 업무혁신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생각한다가 43.3%, 약간높게 한다가 38.4%, 보통이다 14.9%로 81% 정도가 업무에 대하여 혁신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조합사업계획 수립시 조합원의 의사반영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36.6%, 약간 만족 34.7%, 보통이다 25%로 71%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수협에 대한 조합원(이용자)으로서의 자질 및 애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3-11> 조합원의 자질 및 애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사업참여 적극도	전혀 그렇지 않다	4	1.4	1.5	1.5
	별로 그렇지 않다	4	1.4	1.5	3.0
	보통이다	59	21.0	22.2	25.2
	약간 그렇다	101	35.9	38.0	63.2
	매우 그렇다	98	34.9	36.8	100.0
	합계	266	94.7	100.0	
문제의식 인지도	전혀 미파악	2	.7	.8	.8
	별로 미파악	10	3.6	3.8	4.5
	보통이다	79	28.1	29.9	34.5
	약간 차악	112	39.9	42.4	76.9
	매우 잘 파악	61	21.7	23.1	100.0
	합계	264	94.0	100.0	
희생 감내도	전혀 그렇지 않다	5	1.8	1.9	1.9
	별로 그렇지 않다	20	7.1	7.5	9.4
	보통이다	86	30.6	32.5	41.9

<표 3-11> 조합원의 자질 및 애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약간 그렇다	100	35.6	37.7	79.6
	매우 그렇다	54	19.2	20.4	100.0
	합계	265	94.3	100.0	
조합비전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4
	별로 그렇지 않다	3	1.1	1.1	1.5
	보통이다	60	21.4	22.6	24.2
	약간 그렇다	110	39.1	41.5	65.7
	매우 그렇다	91	32.4	34.3	100.0
	합계	265	94.3	100.0	
직원과의 유대감	전혀 그렇지 않다	1	.4	.4	.4
	별로 그렇지 않다	6	2.1	2.3	2.7
	보통이다	49	17.4	18.7	21.4
	약간 그렇다	94	33.5	35.9	57.3
	매우 그렇다	112	39.9	42.7	100.0
	합계	262	93.2	100.0	
탈퇴용의	전혀 그렇지 않다	24	8.5	9.1	9.1
	별로 그렇지 않다	38	13.5	14.3	23.4
	보통이다	77	27.4	29.1	52.5
	약간 그렇다	83	29.5	31.3	83.8
	매우 그렇다	43	15.3	16.2	100.0
	합계	265	94.3	100.0	
자격 지속 유지	매우 있다	129	45.9	47.1	47.1
	있다	117	41.6	42.7	89.8
	보통이다	28	10.0	10.2	100.0
	합계	274	97.5	100.0	

수협사업에 대한 참여 적극도에 대한 만족도 결과 적극참여한다 36.8%, 약간참여한다 38%, 보통으로 참여한다 22.2%로 75% 정도가 적극성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소속조합이 처해있는 경영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인지도는 약간 파악하고 있다 42.4%, 보통 파악하고 있다 29.9%,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 23.1%로 65% 이상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조합경영이 어려워져 조합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출자증액, 손실부담 등 조합원으로서의 희생 감내여부에는 적극부담 하겠다 20.4%, 약간부담 하겠다 37.7%, 보통부담 하겠다 32.5%로 58% 정도가 희생에 대한 의무부담을 하겠다고 표시하였고, 조합의 비전과 장기발전방향에 대하여는 매우 관심있다 34.3%, 약간 관심있다 41.5%, 보통 22.6%로 75%가 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으로서 수협 직원과 서로간의 유대감에 대해서는 매우높다 42.7%, 약간높다 35.9%, 보통 18.7%로 78% 이상이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익을 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탈퇴유무에는 수협 이용의 실익이 없을시 약간탈퇴 용의가 있다 31.3%, 보통으로서 탈퇴를 고려하겠다 29.1%, 적극탈퇴 하겠다 16.2%로 실익이 없을시 76% 정도가 탈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앞으로 수협 조합원으로서의 신분 지속유지 의향에 대하여는 계속유지 하겠다 52.9%,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47.1%, 보통이다 10.2%로 90%정도가 계속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만족도를 점수로 측정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수협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협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7점을 나타냈고 세부적으로 은행업무(4.37), 판매사업(4.20), 구매사업(4.10), 이용보관사업(3.84), 공제사업(4.25), 지도사업(4.19)로 나타나 이용보관사업과 구매사업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은행업무와 판매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협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4.14점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는 봉사정신(4.33), 현황파악능력(4.07), 위기의식(3.84), 의사소통(4.24), 업무혁신(4.21), 조합원 의사반영(4.03)으로, 현황파악능력과 위기의식, 조합원 의사반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인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어업인이 수협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면 수협사업에 대한 참여

도(4.07), 문제인식 인지도(3.83), 희생 감내도(3.67), 조합비전 관심도(3.67), 직원과의 유대감(4.18), 탈퇴 용의성(1.69)으로 나타나 수협사업 및 직원에 대한 만족도 대비 수협에 대한 자세가 비교적 다소 수동적 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탈퇴 용의성은 낮아 탈퇴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과의 유대감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수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98로 나타났으며 만족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향후 지속적 연구와 개선을 통해 어업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수협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표 3-12> 수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도	274	1	5	3.98	.798
상호금융(은행)업무	271	1	5	4.37	.833
판매사업	271	1	5	4.20	.909
구매사업	261	1	5	4.10	.950
이용가공사업	255	1	5	3.84	1.016
공제사업	269	1	5	4.25	.843
지도사업	269	1	5	4.19	.896
수협사업만족도	272	1.5	5	4.1719	.69040
봉사정신	269	1	5	4.33	.822
현황과악	267	1	5	4.07	.855
위기의식	265	1	5	3.84	1.025
의사소통	270	1	5	4.24	.839
업무혁신	268	1	5	4.21	.844
조합원 의사반영	268	1	5	4.03	.897
직원태도만족도	270	1	5	4.1429	.69436
사업참여 적극도	266	1	5	4.07	.885
문제의식 인지도	264	1	5	3.83	.851
희생 감내도	265	1	5	3.67	.946
조합 비전 관심도	265	1	5	4.08	.803
직원과 유대감	262	1	5	4.18	.842
탈퇴용의도	265	1	5	1.69	1.173
지속 유지의향	274	1	3	3.37	.662
유효수 (목록별)	236				

주) 탈퇴용의도는 탈퇴 만족도가 낮을수록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않는다면 탈퇴의지가 강하다는 의미

제 4 절 조합원의 지도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도사업은 그 대상을 조합원에 한정하지 않고 잠재적 조합원인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어촌지역사회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지도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합원들의 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 46.5%, 약간만족 30.1%으로 76% 이상이 조합원들에게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협중앙회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3-13> 응답자가 거래하는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2	.7	.7	.7
	별로 그렇지 않다	7	2.5	2.6	3.3
	보통이다	54	19.2	20.1	23.4
	약간 그렇다	81	28.8	30.1	53.5
	매우 그렇다	125	44.5	46.5	100.0
	합계	269	95.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	4.3		
합계		281	100.0		

수협 지도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애로사항 상의대상, 수협지도직원의 도움여부, 도움부재이유, 수협 지도사업의 지역기여도, 향후 지도사업의 추진방향, 조합원이 알고 있는 중앙회 지도사업 중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 조합 지도사업 중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 조합원(어업인, 어촌)에 대한 수협의 개선 필요사항, 수협 지도직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수협직원의 자세, 어업인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다.

조합원이 일정 어업소득을 달성하는 경영과정에서 애로를 느낄때 가장 먼저 상의해 보고 싶은 대상은 수협임직원이 49.6%, 어촌계장 17.6%, 어촌지도소직원 11.1% 기타 공무원 12.2% 순이었고, 수협지도직원으로부터 도움에 대해서는 84.3%가 어업경영 과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협직원과의 낮은 접촉기회, 비신뢰성, 수준이하, 장시간의 사유로 도움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24% 정도 있었다.

<표 3-14> 응답자의 수산업경영상의 애로사항 상의대상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어촌지도소 직원	29	10.3	11.1	11.1
	어촌계장	46	16.4	17.6	28.6
	공무원	32	11.4	12.2	40.8
	수협 임직원	130	46.3	49.6	90.5
	선진어업인	12	4.3	4.6	95.0
	기타 수산단체	11	3.9	4.2	99.2
	기타	2	.7	.8	100.0
	합계	262	93.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9	6.8		
합계		281	100.0		

<표 3-15> 응답자가 느끼는 수협지도직원 도움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큰 도움	93	33.1	34.8	34.8
	약간 도움	133	47.3	49.8	84.6
	보통	24	8.5	9.0	93.6
	별로 도움 안됨	12	4.3	4.5	98.1
	전혀 도움 안됨	5	1.8	1.9	100.0
	합계	267	95.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5.0		
합계		281	100.0		

<표 3-16> 수협지도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못받는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결측	시스템 결측값	214	76.2	76.2	76.2
유효	직원 수준이 본인보다 낮다	13	4.6	4.6	80.8
	신뢰할 수 없음	6	2.1	2.1	82.9
	시간이 많이 걸려서	11	3.9	3.9	86.8
	잘 응해주지 않음	4	1.4	1.4	88.6
	접촉기회 적음	29	10.3	10.3	98.9
	기타	4	1.5	1.5	100.0
합계		281	100.0	100.0	

수협 지도사업이 지역사회의 수산업발전 및 어가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기여한다가 53.8%, 크게 기여한다 24.2%, 보통이다 16.3% 로 78% 이상이 기여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수협 지도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크게 기여	64	22.8	24.2	24.2
	어느정도 기여	142	50.5	53.8	78.0
	보통	43	15.3	16.3	94.3
	별로 없다	13	4.6	4.9	99.2
	잘 모름	2	.7	.8	100.0
	합계	264	9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6.0		
합계		281	100.0		

어업인 및 어촌에 대한 지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어촌계·청년회·영어조합법인 등 소규모 조직중심으로의 추진을 34.2%, 어촌계장 등 지도자 중심으로 27.4%, 기타 집단지도(어업인교육 등) 12.1%, 개별어업인 중심으로의 추진이 10.7% 순으로 나타났고,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 개별 위주의 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응답자가 생각하는 지도사업 추진방향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7.8	7.8	7.8
유효	개별어업인	30	10.7	10.7	18.5
	소규모 조직중심	96	34.2	34.2	53.0
	집단지도	34	12.1	12.1	65.1
	어촌계장 등 중심	77	27.4	27.4	92.5
	어업인후계자 중심	3	1.1	1.1	93.6
	조합방문 어업인중심	17	6.0	6.0	99.6
	기타	2	.8	.8	100.0
합계		281	100.0	100.0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지도사업 중 추진도가 높은 사업별 항목에 대한 다중응답결과, 수산종묘방류사업(25.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23.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업인 교육지원사업(16.9%), 경영지도사업(15.0%), 불가사리퇴치사업(12.4%), 마을어장정화사업(6.4%)의 순이었다. 중앙회의 대어업인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영어활동 및 환경개선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을 선호하였다.

<표 3-19>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앙회 주요 지도사업 중요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중앙회지도사업 잘되는항목	경영지도사업	110	15.0%	42.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69	23.0%	65.0%
	수산종묘방류사업	185	25.2%	71.2%
	불가사리퇴치사업	91	12.4%	35.0%
	마을어장정화사업	47	6.4%	18.1%
	어업인교육지원사업	124	16.9%	47.7%
	기타	8	1.1%	3.1%
합계		734	100.0%	282.3%

<표 3-20> 최근 3년간 조합별·어촌계별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수산종묘 방류사업		불가사리 퇴치사업		어장정화 사업		폐기물집하장 사업	
	조합	어촌계	조합	어촌계	조합	어촌계	조합	어촌계	조합	어촌계
2008년	60	113	43	63	9	36	8	14	0	0
2009년	68	160	48	116	6	29	10	15	4	0
2010년8월	38	84	23	43	3	11	7	30	5	0

※ 폐기물 집하장 사업은 2008년도는 사업 미신청으로 실적없음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

회원조합의 지도사업 중 잘되는 항목에 대한 다중응답결과, 안전조업지도사업(18.3%), 어업인피해보상추진사업(16.0%), 자율관리어업실시지원사업(15.6%), 어장관리지도사업(14.2%), 어항관리시설유지사업(12.7%),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12.0%)의 순으로, 조합원들은 어가소득증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계통조직의 사업기능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대책이 필요하다.

<표 3-21> 응답자가 생각하는 회원조합 지도사업 중요도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조합지도사업 잘되는항목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	87	12.0%	34.5%
	어항관리시설유지사업	92	12.7%	36.5%
	어업인피해보상추진사업	116	16.0%	46.0%
	어장관리지도사업	103	14.2%	40.9%
	불법영업대책지원	50	6.9%	19.8%
	안전조업지도사업	132	18.3%	52.4%
	자율관리어업실시지원사업	113	15.6%	44.8%
	적조피해방지복구사업	25	3.5%	9.9%
	기타	5	.7%	2.0%
합계		723	100.0%	286.9%

수협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다중응답결과, 어장환경개선(19.1%), 생산물의 시장유통(18.6%), 정책자금의 보강(16.3%), 어업인에 대한 인식제고(13.4%), 어촌의 낮은 문화수준 향상(13.0%)의 순으로, 조합원들은 수협이 생산자단체로서 기존 수협의 역할 이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다.

<표 3-22> 어촌·어업인에 대한 수협차원의 최우선 개선사항

구분		응답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수협개선 필요사항	어장 환경개선	143	19.1%	55.9%
	어업인력 보강	87	11.6%	34.0%
	생산물의 시장유통	139	18.6%	54.3%
	자녀교육 및 진학	50	6.7%	19.5%
	어촌의 낮은 문화수준 향상	97	13.0%	37.9%
	어업인에대한 인식제고	100	13.4%	39.1%
	정책자금의 보강	122	16.3%	47.7%
	기타	9	1.2%	3.5%
합계		747	100.0%	291.8%

조합원이 생각하는 수협 지도직원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능력 및 적극성을 살펴보면 우수하다 51%, 매우 우수하다 23.2%, 보통이다 22%, 기타 미흡하다가 3.1% 순으로 74% 이상이 지역사회에서의 수협직원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응답자가 생각하는 수협 지도직원 능력 및 적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우수	60	21.4	23.2	23.2
	우수	132	47.0	51.0	74.1
	보통	57	20.3	22.0	96.1
	미흡	8	2.8	3.1	99.2
	매우 미흡	1	.4	.4	99.6
	기타	1	.4	.4	100.0
	합계	259	92.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7.8		
	합계	281	100.0		

조합원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수산물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이나 유사기관인 농협의 지도직원과의 비교에서 수협 지도직원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우수하다 49.4%, 매우 우수하다 20.8%, 보통 25.9%, 미흡하다가 3.1%로 70% 이상이 업무 추진 자세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유사기관 대비 수협 지도직원의 지도업무 추진자세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 우수	54	19.2	20.8	20.8
	우수	128	45.6	49.4	70.3
	보통	67	23.8	25.9	96.1
	미흡	8	2.8	3.1	99.2
	매우 미흡	2	.7	.8	100.0
	합계	259	92.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2	7.8		
합계		281	100.0		

조합원의 영어활동 중 수협 지도직원의 생산활동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수협 직원이 크게 도움된다 18.3%(47명), 도움된다 62.6%(161명), 보통으로 도움된다 16.3%(42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5명)로 80% 이상이 어업인들의 영어활동에 수협 지도직원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수협 지도직원이 응답자 영어활동에 미치는 기여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크게 도움	47	16.7	18.3	18.3
	도움됨	161	57.3	62.6	80.9
	보통	42	14.9	16.3	97.3
	도움 안됨	5	1.8	1.9	99.2
	전혀 도움안됨	2	.7	.8	100.0
	합계	257	91.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4	8.5		
합계		281	100.0		

앞으로 수협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어촌지도 업무수행의 문제점 및 그해결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귀중한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실시확대, 면세유류 공급확대, 영어자금 금리인하 및 현실화, 어업인교육 실시확대, 조합원 배당 및 배당금 지급확대, 어촌사랑주부모임 활성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어지도 등의 강화, 위관시설 개선 및 확대, 어촌관광 활성화, 최일선 단위 어촌계 육성을 위한 어촌계 전담 인력 확보와 지도과 우선지원, 각 어촌계별 해중립사업실시를 통한 패조류 서식 증대, 성게도 해적생물이므로 불가사리와 동일하게 구매사업실시 요청,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한 조합임직원과 조합원의 원활한 소통 필요, 수협의 모든사업을 어업인 우선적인 사고 전환 필요, 현장과 거리감 있는 업무추진보다는 진정한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취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신 부족, 이밖에 한정어업허가제 도입, 위관장 증설, 에너지절감형 어업 추진, 지역에 적합한 어업종류 및 신규어업의 도입을 희망하는 의견 등 조합원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과 이를 위한 대어업인 의견수렴 방안장구 등의 주요 개진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지표설정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고, 미래의 어업에 대하여는 어장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보호에 의한 어장·자원의 유효이용 등의 순으로 바라는 기타의견이 있었다.

제 5 절 설문조사 결과종합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산업과 협동조합의 주요 연구에서는 어업인을 기초로 하고 집단의 공동이익과 어업인(조합원)의 만족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조합원(응답자)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50대(39.5%)로 청년층의 기피현상이 심각하고 주로 연안복합어업(34.8%)에 20년 이상 종사(46.3%)하였으며, 연간소득은 30백만원 미만이 26.7%(74명), 50백만원 미만 구간이 20.6% (57명), 30백만원 미만이 과반수를 넘어 영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어촌계 '10년 호당 평균소득은 25백만원으로 아직도 영세한 수준이다. 또 설문조사결과 응답자들이 수협 지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어업인들의 정부정책 지지와 수많은 재정지원의 경제논리와 사례에 따라 수협도 과감히 탈퇴할 수 있다는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규 잠재 호응 계층 및 청년층의 어촌 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프로어업인'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별 수협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수협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4.17점, 직원태도에 대한 만족도는 4.14점으로 각각 사업의 만족도는 높으나, 수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협의 사업수행 업적 대비 수협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애착도 결과에서도 실익이 없을시 76% 이상이 탈퇴를 고려하여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조합원은 언제나 원심력과 구심력을 가진 이중성이 있어 경제적으로 시장이 유리하면 수협을 멀리하고, 공동행위가 유리하면 수협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협 지도사업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사업 중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영어활동 환경개선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앙회의 지도사업의 경

우에는 수산종묘방류,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어업인교육지원 등 이며, 회원조합의 지도사업으로는 안전조업지도, 어업인 피해보상, 자율관리어업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수협이 어촌의 발전을 위한 어업인 후계자 역할증대와 잠재력 개발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행정관청, 관련단체 등에 의한 어업의 미래전망에 관한 건의 요구 등에서 수협은 조합원의 필요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원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원 만족도 설문결과 분석을 통하여 조합원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과 만족수준이 낮게 나온 항목의 만족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조합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만족수준이 높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지속유지 하여 조합원의 전체 만족수준을 높여야 하며,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과 수협의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 사업구조 재편 등 수협의 현재 당면 실정으로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조합원과의 상생과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지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중앙회의 지도사업을 어촌현장에 전파 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업인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설문)’를 실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어업인이 수협의 주인이다’라는 이미지 쇄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 4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 발전방향

제 1 절 지구별수협의 지도사업 사례분석

1. 경영상태별 지도사업비 분석

앞서 제2장에서 전개한 것과 같이 지도사업은 협동조합 사업의 핵심이자 조합원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중요사업인 바 이 장에서는 회원조합별 사업규모에 따른 지도사업비 집행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도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해보고 주요 조합들의 핵심 지도사업 예시를 통한 해당조합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원조합은 경영상태에 따라 정상조합, 부실조합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협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 1항에 의거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59호)에 따라 정상조합과 구분하기 위하여 순자본비율이 0%미만이 조합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조합으로 구분하며 이들 조합을 부실조합 등이라 한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92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협중앙회에서 집계하고 있는 회원조합의 사업규모 구성항목에는 지도사업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시 다중공산성이 발생할 수 있어 사례분석에서 사용한 회원조합의 사업규모에서는 지도사업비를 제외하였으며 '10년 현재 정상조합과 부실조합으로 구분하고 조합 상태별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지도사업비는 수협의 수익사업 잉여금의 환원을 통해 조합원과 어업인을 위해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지도사업비가 사업규모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는 조합의 경영상태를 정상조합과 부실조합으로 구분하여 지도사업비의 집행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지도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 4-1>에서 회원조합 사업실적에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개 조합을 대상으로 정상 및 부실조합으로 구분하여 회원조합의 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가공사업, 양식사업, 공제사업, 대출금 등에 대한 실적을 2009년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정상조합의 전체 사업실적 중 지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1%였고, 부실조합의 경우에는 0.04%로 나타났다. 회원조합의 세부적인 지도사업 실적을 보더라도 정상조합의 경우 조직강화비와 생산지도비가 81%를 차지하였고 부실조합의 경우에는 76% 차지하여 정상조합이 조합원의 결집과 생산활동 여건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정상-부실조합 지도사업비 비교

□ 회원조합 사업실적

(2009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회원조합 사업실적								
	합계	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가공사업	양식사업	공제사업	대출금
		사업비	비율	취급고	취급고	취급고	취급고	공제료	평잔
정상	15,607,135	15,472	0.1%	506,038	1,881,722	43,833	8,044	268,012	5,087,782
부실	11,276,954	5,014	0.04%	262,972	1,204,999	43,802	-	143,655	3,980,542

□ 회원조합 지도사업비 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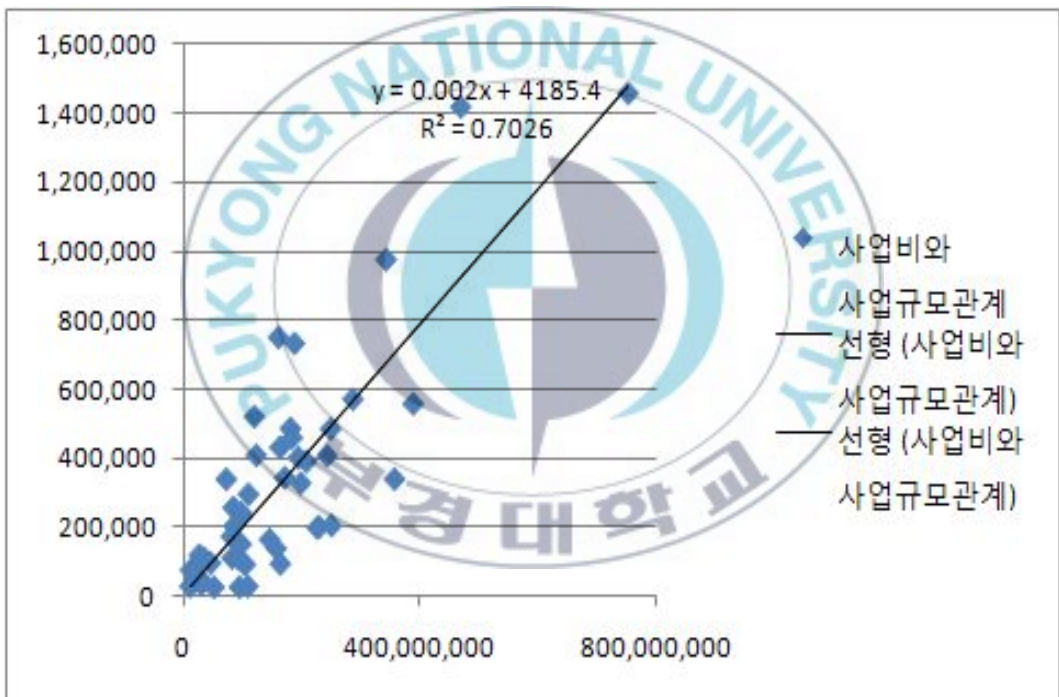
(2009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실적계	조직강화비	생산지도비	교육훈련비	선전계몽비	지도잡비
정상	15,471,855	9,313,527	3,298,951	994,913	1,509,217	355,247
부실	5,014,247	2,797,963	1,040,132	455,722	636,943	83,487

2. 경영상태 대비 지도사업 현황

정상조합에 대한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집행실적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그림 4-1>과 같이 알스퀘어 값이 0.7026으로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규모가 크고 탄탄한 조합일수록 지도사업비를 많이 지출하고 조합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 정상조합의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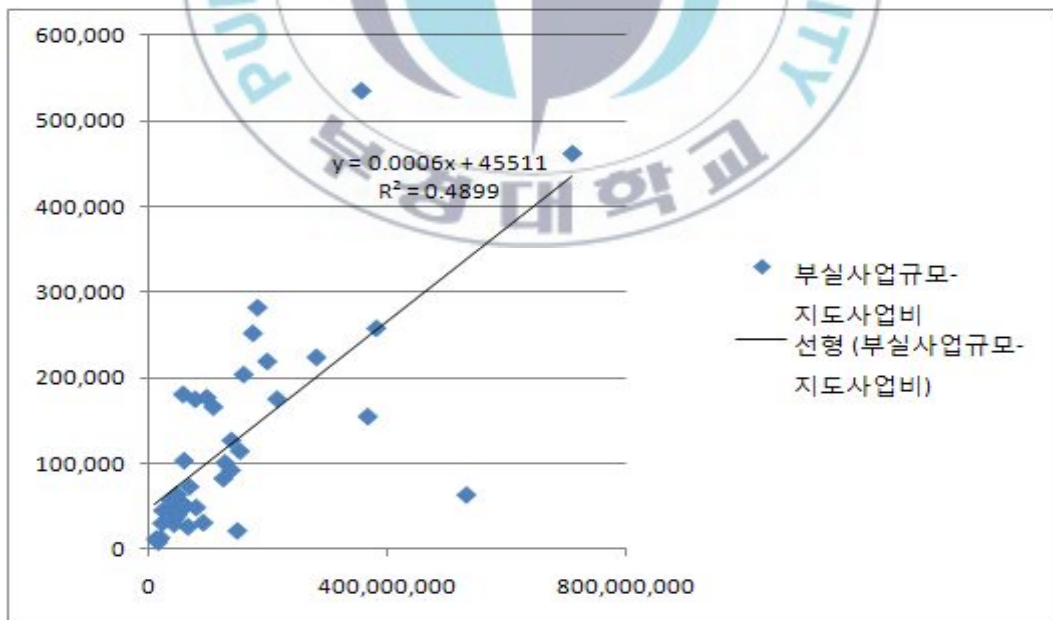


부실조합의 경우 <표 4-3> 1. 회원조합 사업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개 회원조합의 지도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가공사업, 양식사업, 공제사업, 대출금 등을 조사하였고, 2. 회원조합 지도사업 실적과 같이 이들 조합의 실제 지도사업비 집행내역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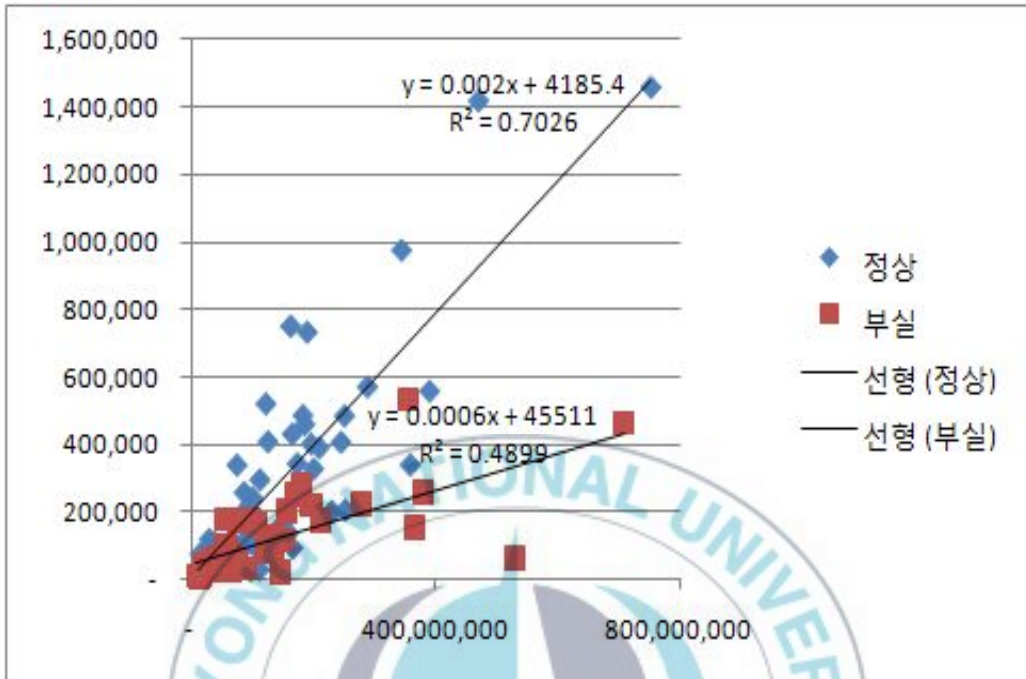
부실조합 등의 경우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집행실적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그림 4-2> 와 같이 알스퀘어값 0.4899로 사업규모와 지도사업간에는 유의하지 않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실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욕구 충족 등을 위한 지도사업에는 정상조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자본잠식 조합의 애로사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잠식조합은 출자금 환급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선 조합에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손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즉 조합원과 고객들로부터 조합 신용이 실추되어 신규 출자는 물론 출자 증자에 큰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 기피현상이 초래되어 예탁금 이동현상까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조합은 신규사업이 제한되어 조합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에 정부와 중앙회의 건설적인 판단으로 신규사업 제한과 출자금환급 제한 등의 완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부실조합의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상관관계 분석



<그림 4-3> 정상-부실조합 사업규모와 지도사업비 비교



이상에서 조사된 결과를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 <그림4-3>에서와 같이 정상 조합의 경우 부실조합에 비하여 사업규모에 비례하여 지도사업비가 증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 부실조합에 비해 정상조합이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에 힘쓸 여지가 높으며 수협이 본질적 기능에 대한 회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실조합의 경우에는 경영환경이 어려우므로 MOU 상 지도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추진 제한 및 통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도사업비 집행실적이 낮다는 것과 부실상태에서는 지도사업을 활성화 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부실조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실조합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도사업에 대한 노력보다는 부실 조합의 경영정상화가 우선 필요하다. 즉, 장기적으로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조합의 경영건전화는 필수요소로 판단된다.

3. 회원조합 지도사업의 분석

'09년도 기준으로 정상조합 상위 10개조합의 지도사업비와 부실조합 하위 10개조합의 지도사업비를 비교한 결과, 정상조합의 경우 사업비가 662백만원에서 1,906백만원까지 집행(평균 980백만원)하고 있으며, 어업인(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증대기반사업확충에 중점을 두고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조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반하여, 부실조합 하위 10개조합의 경우에는 지도사업비가 37백만원에서 52백만원까지 집행(평균 52백만원)하고 있으며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조합원 정비, 각종 재해피해 방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협동조합의 지도사업은 어업인들을 생산의 계획화나 유통비용의 절감 등 전반적인 기술지도가 아닌 조합의 경영상태 개선을 통한 주관적인 직접 지도를 위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수협지도직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어가의 지도수요를 대응하여 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향상을 통한 지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낱알이 세분화되고 있는 지도사업의 지도기능 및 지도내용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지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이제는 '지도사업'명을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상호금융사업 등 수익사업의 재원을 통하여 지도대상 어업인을 경영유형별, 품목별, 기술수준별로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인 획기적인 지도사업아이템에 대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어장정화·청소, 종묘방류 살포는 물론 공동작업장, 복지회관, 탈의장 등 어업인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조합의 지도사업 우수 사례에서 보듯이 조합의 자체자금 지원을 통한 지도사업실시와 구룡포수협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지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 또한 어업인들의 어장이 축소된 조합의 경우 과감한 조합원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육성

이 필요하며, 이들 조합원들에게는 확실적인 출자배당보다는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이용고 배당을 해야 하고, 조합원의 불만을 제거하고 주인 의식 및 참여의식 고취에 주력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표 4-2> 경영상태별 회원조합 주요 지도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사업명	금액
정상조합 주요 지도사업	수산물 관련 신문, 광고, 조합원 달력제작 등 선전계몽비	677
	재해대책비	491
	어촌계 소득증대사업 보조금	754
	어장관리 및 자원조성	455
	어업질서확립 등 어로지도비	191
부실조합 주요 지도사업	수산물 관련 신문, 광고, 조합원 달력제작 등 선전계몽비	68
	어로지도비, 재해대책비 등 생산관리비	79
	조직육성비(대의원, 어촌계장 선진지견학, 조합원 선물대, 경조비 등)	60
	어업인 관련 간담회, 행사비	25
	재해대책비	15

<표 4-3> 연도별 회원조합 지도사업 계획대비 달성율(2005년~2009년)

(단위: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계획	실적	달성율	연간 계획	실적	달성율	연간 계획	실적	달성율	연간 계획	실적	달성율	연간 계획	실적	달성율
22,215	18,094	81%	23,295	18,100	78%	24,915	19,619	79%	26,980	21,726	81%	26,614	20,458	77%

<표 4-4> 지도사업 상-하위10개 회원조합 평균(2005년~200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도사업비		지도사업비		지도사업비		지도사업비		지도사업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상위	858	752	914	743	991	777	1,095	902	980	799
하위	37	22	47	19	45	24	44	23	52	20

<표 4-5> '09년도 지도사업비예산 '상위 1위 조합'의 주요 지도사업비 현황
(백만원)

주요 어업인지원 지도사업내용	1,648
○ 어업인소득증대사업비	262
- 소득증대 어촌계지원비	120
- 시화지구 어업인대책비, 어장관리 및 어업권실태조사비, 삼중자망, 이각망 용역비, 수산업발전 연구조사비	58
- 불가사리제거사업비, 해양폐기물 처리비, 김유기산사업, 바지락, 김위탁판 매수수료 지원비	84
○ 조합원 의료비 지원비(200x600명)	120
○ 어촌계장 및 자연부락대표활동비	133
○ 어촌계장 회의비, 어촌계장·대의원회 협의회지원	59
○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관내 어업인 법률자문지원, 지선별 어업인 민원상담 지원비	32
○ 창립기념행사 사은품지원	35
○ 어촌사랑주부모임 조직운영지원	16
○ 영어자금 미수해지역 조합원생활안정저리자금 이차보전(625백만원x302%)	20
○ 어촌계등 행사지원	170
- 조합원자녀 경조, 장례용품비, 이동수협 운영비, 어촌계 행사지원비, 지선 별 단합대회	56
- 바다의날 행사비, 화성포구 축제 행사비, 전국 민물고기 맨손잡이 행사비	30
- 수산인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어업인 체육대회 행사비	32
- 어촌계 경로당 위로금(20만원x37개소), 어촌계 및 어업인 업무추진비	18
- 어촌체험관광 활성화행사 및 안전대책	6
- 어촌계 결산 정기총회 지원금 및 조직관리비(40만원x37개소)	16
○ 어업공해 대책비(바다정화운동, 전국연안어장정화운동, 어장청소장비구입)	8
○ 모범어촌계 및 군부대 어통소 포상위문금	2
○ 불법어업 대책비(지도활동비, 현수막 홍보물제작), 어로지도비(어업인안전 조업교육 등)	13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지원	3
○ 재해대책비(해난구조및상호구조경비지원, 재해대책상황실 운영비)	8
○ 환원사업비	492
- 어촌계 환원사업 보조금(75백만원x2회x3,200명)	480
- 조식표 달력 및 수첩제작 지원, 어촌계 무의탁노인돕기	12
○ 어업피해보상(배상) 업무추진비	10
○ 어업인교육훈련비(선진지견학포함)	161
○ 수산물 소비촉진홍보비(신문대지원포함)	77
○ 지도업무 차량지원등 지도잡비	32

<표 4-6> '09년도 지도사업비예산 '하위 1위 조합'의 주요 지도사업비 현황
(백만원)

주요 어업인지원 지도사업내용	37
○ 행사 및 회의비	7
- 관내 양어가 총회 개최비	5
- 각종 간담회비, 지역양식협회 대표자 회의비(20만원X4회)	2
○ 조직육성비	3
- 신규 조합원 가입추진비(10만원X5회), 출자금 증좌 추진비	1
- 자조금 사업지원비	2
○ 포상비(조합이용 우수어업인 감사패)(10만원X5명)	.5
○ 어업인후계자 육성(양어후계자 장학금지급(50만원X2회), 지역협회장 육성지원)	2
○ 어로지도비 [어장지도순회비(20만원X2회), 어장지도 교육강사 지원비]	1
○ 재해대책비	3
- 적조대책 협의회비(30만원X2회), 태풍내습에 따른 대책협의회비(30만원X2회)	1.2
- 자연재해 발생시 어업인위로비 및 복구지원비	2
○ 어장관리 및 지원조성비	1
- 어장정화행사(20만원X3회), 바다가꾸기 행사경비	.9
○ 조사자료수집비(양식어가 현황조사, 영어자금 소요액조사)	.7
○ 불법어업대책비	1
- 유해약품 추방 결의대회(50만원x1회)	.5
- 어깨띠 및 현수막 제작비, 유해약품 근절 홍보비	.5
○ 연구용역비(양어관련 연구용역지원비, 활어안전성 검사제 추진비)	2
○ 비상임감사 교육비(6만원X6일)	.4
○ 광고선전비	6
- 조합홍보 DVD 제작비, 조합 홈페이지 관리비	4
- 조합 홍보관리비(홍보지 간행 등)	2
○ 도서인쇄비	3
- 양식관련 월간지 구독료, 각종 수산관계지 구독료	1.5
- 조합달력 제작비	1
○ 지도잡비(지리적표시 및 생산이력제 업무협조 등)	4

제 2 절 회원조합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1. 회원조합의 역할

조합원에 대한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조합에서는 어업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바다 자원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어업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발표 및 지역 전문가 및 지역네트워크 육성을 위하여 힘써야 하며 특히, 지도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일수록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회원조합 스스로 수산종묘방류사업, 바다가꾸기 등의 어업자원보호를 실시하며 재해예방으로 자연재해를 대처하고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동기초 조직인 어촌계와 어촌사랑주부모임을 활성화 하려는 지도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구성원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대단한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경영부실로 인한 지도사업 부진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조합만족도 저하 뿐만 아니라 향후 자체 어업인 교육이나 중앙회지원의 협동운동교육 적극신청 등을 통한 협동기초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적극 필요하다. 모든 회원조합이 조합원과 관내 어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싶어도 경영환경 등 여건에 구속되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도사업이 활성화된 상위 10개 조합의 지도사업 중 모든 회원조합으로 전파되어 수협 조합원이 자랑스러워하는 어업인상을 그려보며 몇 가지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범 사례 중 재난 조합원 위로를 위한 구휼금 제도, 조합원 복지지원을 위한 원로조합원 및 탈퇴조합원 명절선물비 지원, 면세유 부정유출 신고포상금제도, 특산물 포장개발비 지원, 조합원 전체 의료비 지원, 어업인 민원상담지원, 영어자금 미수혜지역 조합원 생활안정 저리자금 이차보전 지원, 어항 정주 어업인 대기용 컨테이너 지원, 관내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 조난어선 예인비 지원, 위판어업인 유류비 지원 과 같은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지도사업 사례가 활성화되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수협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수협의 비전인 수산인 삶의 질 향상

과 수협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수산의 푸른미래 창조’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앞으로는 단순한 1회성 자금지원 사업의 단기적 효과보다는 회원조합의 경영여건과 회원간 분쟁조정 등을 감안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합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2. 중앙회의 역할

중앙회 차원에서는 첫째, 현재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간에 분쟁이 있는 위판사업조성금의 중앙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구별수협의 상당수 조합이 자본잠식 등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위판조성금 지급이 경영압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안정적인 수익사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수익의 상당부분을 위판조성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판조성금 제도의 폐지나 지급을 하향조정 등은 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가 특정 회원조합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 입장에서 회원조합 전체의 결속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위판조성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수협에서도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한 농업인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수산업 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관련 컨설팅추진은 민간컨설팅(농림부 : 대규모 전업농 대상 컨설팅 서비스), 공적컨설팅(농진청 : 중규모 전업농 대상 컨설팅 서비스), 농업인단체컨설팅(농협 : 조합원 대상 컨설팅 서비스) 이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에 의한 컨설팅 대상의 명료화하여 추진 주체 및 컨설팅대상 역할분담 명료화되어있으나, 수산부문은 '09년부터 컨설팅사업을 시작 (농업은 '99년부터)하였고 농식품부의 농업컨설팅에 수산분야만 추가하여 '10년 현재 수산업컨설팅 인증업체는 한국수산회 등 2개뿐 이며, 10톤 미만 어선 등 영세 어업인 대상 컨설팅은 없으며 수협의 무관심 속에 한국수산회가 최초로 수산분야 컨설팅 인증업체 선정('09년 3월) 되었다. 농협도 농협경제연구소를 통해 회원조합 경영컨설팅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컨설팅사업 인증등록

하였고, FTA 체결('10년 3월)에 따라 정부는 수산보조금 등의 직접보조는 축소하고 컨설팅사업 등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확대 할 예정이므로 수산부문의 경우에도, 수협의 인적자원과 회원조합 계통조직을 활용할 경우 컨설팅사업은 수협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가능하고 농진청이 농업분야의 공적컨설팅을 수행하듯이 수협이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은 수협의 존재가치와 부합된다 할 수 있다.

셋째, 지도사업계획의 확대 편성과 예산의 확보를 통한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실현으로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한국 어업포럼 등 지속 지원 실시 및 어업인 이익을 위한 각종 단체 지원 강화를 통하여 교육·문화·사회적으로 소외된 어업인 복지 증진 예산의 편성을 실시하여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상생을 추진하여야겠다.

넷째, 어촌지역 다문화 가정, 해난사고 유가족 등 어촌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수산 관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완수 필요하다.

다섯째, 수협 매체(어업in수산, 우리바다, 한국의 수협 등) 활용을 통한 어업인 정보 제공 활성화, 어촌 및 어황소개, 수산물 등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 홍보 방송(어황스캐치, 각종 수산정보 등) 확대 편성을 통하여 어업인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활동의 다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과거 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도사업은 단순 명료하고 조합원의 영어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의 지도사업은 양적 및 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지도사업의 유형을 도출하고, 지도사업에 대하여 조합원(어업인)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지도사업의 유형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만족도 조사에 따른 조합원의 행동에 관한 설문지작성과 설문조사 결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하고 지도사업 특성상 적합한 만족도의 유형과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도사업비 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농업 및 수산업 분야 협동조합 지도사업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은 조합원 관점에서 조합원이 원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조합원 지향적 사고를 통한 조합 활성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도사업을 개별어가 또는 소수의 어업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어업생산 기술 및 새로운 정보를 계획적, 지속적으로 선전, 보급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대내외 여건은 특히 날로 악화되는 어업환경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산물 가격하락 및 국제해양법 시대를 맞아 좁아지는 어장을 감안하여 어업인들이 어업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시기 적절하게 파악하여 조합원이 어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찾아야하며, 향후 호당 인구수 감소 추세에 따라 어가 인구수는 더욱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령화 및 자생력이 약한 어업인에서 경쟁력 있는 어업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수협의 지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중앙회는 점차적으로 어업인의 자립의식 함양을 위한 어업소득 이외에도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국민의 레저·관광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어촌관광을 활용하여 친환경·가족 관광지로서 어

촌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어촌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어촌 전통문화 발굴 보전 등 핵심 콘텐츠 개발하고, 수상 레저스포츠 중 대중적 수요를 가진 낚시,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활성화를 통해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 창출 유도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회원조합의 경우에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모든 어가의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조직강화를 통한 협동조합의 기본목적을 달성하려는 목표로 어촌소득증대, 어업분쟁 조정, 어업 조사연구 및 시책건의, 조합원 관리, 어업인 교육강화 등 조합원 주인의식 제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조직과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수협도 환경의 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또한 어촌계 및 어업인의 전문적인 지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도인력의 육성을 위해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전문지도인력 육성과 지도 전문인력풀제를 활용하여 조합원 기대에 충족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은 지도사업이 비수익사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려는 노력과 함께 엄격한 고객관리와 고객 지향적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어업인의 실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협의 어촌계조직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계통간 통합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고유의 핵심역량을 발휘하여 유사경쟁기관에 대응하고 조합원의 선호에 부응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지도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및 조합원의 이해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사업 유형 도출을 위하여 전국 지구별 수협을 대상으로 1개월간 수협에 대한 만족도와 수협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지 구성으로 설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어업인” 양성이 필요하고 조합원의 수협사업에 대한 이용의 이중적 태도를 위해서라도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수협 지도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지도사업 개선방향은 수협이 효율적인 생산자단체가 되려면 수협이 조합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원은 수협을 신뢰함으로써 다른 조직과 명확히 구분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영어 생산활동 및 소

특증대 지도에 대한 어업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어업생산기술 및 정보에 대한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수협이 삼위일체가 되어 역할분담을 추진하여야 하며, 수협 개혁을 통한 협동조합의 개선방향 연구와 조합원(어업인)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에 대한 수협의 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조합원 니즈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지도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경영정상화에 매진하여 점차적으로 조합원(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어업인대표가 참여하는 기구 구성을 통한 의견반영과 정보공유와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발전적 모델 도출 등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수협은 기초조직으로의 기능을 하는 어촌계는 과거 지구별수협과 업무 경합도 있었으며 업무구역 또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에 따라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와서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대변하며 관철시키고 독자적인 어촌지역사회의 분화조직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협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나 설문조사 등에서 온정적이고 수협과의 애로사항을 숨기는 결과가 도출되어 진정 어업인과 조합원이 어촌지역사회의 리더로서 그들이 갈망하고 바라는 바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앞으로의 지도사업은 어업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고 어업인에게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어촌계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하여 교육 및 선거 지도 등 어촌계의 내부 사무처리 투명성 및 합리성을 위한 어촌계 정관, 규약의 제·개정을 통해 세세한 내용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둘 수 있도록 어촌계에 대한 교육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방안과 어촌계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와 어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제공중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어업인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의 의견까지 수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 및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사업추진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비용부담을 지양하고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존재이유가 지도사업에 있음을 직시하여 먹을거리·볼거리·놀거리·쉼거리를 연계하여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확대 및 어업통신사

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의 활용을 통한 어업인 지원방안으로 어촌계장 등 어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수행함으로써 어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필요할 것이다.

2. 향후 연구방향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어업인의 수협에 대한 이질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정책개발을 실시하고 특히 수협의 실질적인 주인은 어업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과 어업인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와 수협과 어업인이 공동체로서 공감을 형성하고,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한 몇 가지 주요한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지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사 협동조합인 농협 대비 사업 규모가 작지만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 후 지도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지도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어떤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가져갈 것 인지에 대한 방향성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도사업의 필요성, 공익성에 관한 연구로서 지구별수협 및 수협중앙회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 결과는 어업인을 계도하고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어업인들을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익적인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적 부분에 관해서 공익성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므로 사업추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른 투자효과의 검증이 필요하고 여러종류의 지도사업 중 사업추진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계량적인 사업분석이 필요하겠다. 향후 이러한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지도사업을 중점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송정현, 「협동조합경영론, 2010」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지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8」, p8
3. 수협중앙회 2009년도 결산보고서
4.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 혁신에 관한 연구」, 1999, p28
5. 수협중앙회 2009년도 회원조합결산보고서
6. 조관일, 1997, 고객만족이 살길이다, 농업기술교류센터, pp.23
7. 수협중앙회, 2009년 어촌계분류평정
8. 국토해양부, 「레포츠피싱을 위한 거점비즈니스 모형개발 연구」, 2009, p143
9. 해양수산부, 「레포츠피싱(Leports-fishing)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 2005, p9
10.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수산업협동조합 혁신에 관한 연구」, 1999, p40
11. 서광문,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적 본질에 관한 연구」, 1999, p86
12.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1996, p59
13. 농림수산식품부, 「新수산비전 및 전략」보고서, 2009, p102

【부 록】

일련번호			
------	--	--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에서 해양산업경영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순철입니다.

본 설문지는 수산인의 단체인 수협에 대한 수산인의 만족도와 지도사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평소 수협에 관하여 느끼시는 바를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논문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연구통계자료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구에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석사과정

박 순 철 올림

연락처 : Tel)02)2240-2136

HP)010-3066-1892

I. 조사자에 대한 일반사항

귀하의 수산업 종사현황을 파악코저 하오니 아래 문항 중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20~30세 ② 31~40세 ③ 41~50세 ④ 51~60세 ⑤ 61세이상

3. 귀하가 수산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5년 미만 ② 10년 미만 ③ 15년 미만 ④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4.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연안어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① 연안통발어업 ② 연안안강망어업 ③ 연안선망어업 ④ 연안복합어업
⑤ 연안자망 ⑥ 연안조망 ⑦ 연안선인망 ⑧ 기타()

5. 귀하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양식어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① 어류양식어업 ② 패류양식어업 ③ 해조류양식어업 ④ 기타()

6. 귀하의 연간 소득 수준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천만원 미만 ② 2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미만 ⑤ 5천만원 이상

7. 귀하의 어선톤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무동력선 ② 2톤미만 ③ 2-5톤 ④ 6-9톤 ⑤ 10톤이상

II. 수협의 전반적인 만족도 질문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래문항중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기입하거나 기타의 경우는 해당내용을 ()안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귀하가 거래하는 지역수협의 세부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5)	약간 그렇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①수협의 은행 업무는 조합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②수협의 판매사업은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해주었다.					
③수협의 구매사업은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해주었다.					
④수협의 이용보관사업은 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해주었다.					
⑤수협의 공제사업은 조합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⑥수협의 지도사업은 조합원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 다음은 평소 수협직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 용	매우 그렇다 (5)	약간 그렇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①조합원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업무수행에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다.					
②조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③조합의 경영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생존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④조합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조합의 체질개선과 업무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⑥사업계획수립에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3. 다음은 수협의 조합원(이용자)으로서 평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5)	약간 그렇다 (4)	보통 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2)	전혀 그렇지 않다(1)
①평소 조합사업 및 행사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②조합이 처해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다.					
③조합경영이 어려워지면 출자증액, 손실부담 등 조합원으로서 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다.					
④조합의 비전과 장기발전방향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있다.					
⑤직원과 조합원 서로간에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⑥조합원에게 실익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않는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용의가 있다.					

4. 지금까지 평가해주신 모든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귀하가 거래하는 지역수협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5. 수협 조합원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

① 매우 있다 ②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6. 앞으로 수협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어촌지도 업무수행의 문제점 및 그 해결책에 대한 귀하의 귀중한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Ⅲ. 수협 지도사업에 대한 만족도 질문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래문항중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기입하거나
기타의 경우는 해당내용을 ()안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수산업 경영과정에서 애로를 느낄때 가장 먼저 상의해 보고 싶은 대상은 누구
입니까? ()
① 어촌지도소 직원 ② 어촌계장 ③ 공무원 ④ 수협 임직원 ⑤ 선진어업인
⑥ 기타 수산관련 단체(어촌어항협회, 수산경영인연합회 등) ⑦ 기타()
2. 귀하는 수협 지도직원으로부터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① 큰 도움을 받고 있다 ② 약간 도움을 받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⑤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3. (2번 문항의 ④, ⑤으로 대답한 경우)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도직원의 수준이 본인보다 낮다 ② 신뢰할 수 없어서 ③ 시간이 많이 걸려서
④ 잘 응해 주지 않아서 ⑤ 접촉기회가 적어서 ⑥ 기타()
4. 귀하는 수협의 지도사업이 지역 수산업발전 및 어가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
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기여한다 ② 어느정도 기여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나아진게 없다
⑤ 잘 모르겠다
5. 귀하는 어업인 및 어촌에 대한 지도사업이 어떤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별어업인 ② 소규모 조직중심(어촌계, 청년회, 영어조합법인 등)
③ 집단지도(어업인교육 등) ④ 어촌계장 등 지도자 중심 ⑤ 어업인후계자 중심
⑥ 조합방문 어업인중심 ⑦ 기타()

6. 수협중앙회 지도사업은 어업경영개선과 조합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잘 추진되고있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선택 기재하십시오)

- ① 경영지도사업 ②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③ 수산종묘방류사업
④ 불가사리구제사업 ⑤ 마을어장정화사업(스킨스쿠버를 이용)
⑥ 어업인교육지원사업 ⑦기타()

7. 귀하가 속한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지도사업은 조합원들의 영어활동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잘 추진되고있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선택 기재하십시오)

- ①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 ② 어항관리시설유지사업 ③ 어업피해보상추진사업
④ 어장관리지도사업 ⑤불법어업대책지원 ⑥ 안전조업지도사업
⑦ 자율관리어업실시지원사업 ⑧ 적조피해방지복구사업 ⑨ 기타()

8. 어촌사회 및 어업인에 대한 수협의 개선사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선택 기재하십시오)

- ① 어장의 환경개선 ② 어업인력 보강 ③ 생산물의 시장유통
④ 자녀 교육 및 진학 ⑤ 어촌의 낮은 문화수준 향상 ⑥ 어업인에 대한 인식제고
⑦ 정책자금의 보강 ⑧기타()

9. 다음은 수협 지도직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수협 지도요원의 지도 능력 및 지도업무에 임하는 적극성은 ? ()

-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10. 귀하의 주변 수산물 관련 단체·기관이나 농협의 지도직원과 비교해서 지도업무에 임하는 수협 지도직원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11. 수협 지도직원의 지도가 귀하의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는 어떻습니까? ()

- ① 크게 도움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12. 앞으로 수협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어촌지도 업무수행의 문제점 및 그 해결책에 대한 귀하의 귀중한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